metro®

메트로 2014년 3월 18일 화요일 제2936호 www.metroseoul.co.kr

크림발 경제위기 먹구름 예고

러시아 귀속 96% 찬성…푸틴, 절차 진행
원자재 시장 요동 신흥국 불안 커질 듯

2008년 금융위기 충격에서 간신히 회복했던 세계경제가 이번엔 '크림발 경제위기' 악몽에 떨고 있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미국·영국·프랑스 등 서방 국가와 러시아가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일 조짐이기 때문이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자금 유출, 중국 경제성장 둔화 가능성, 경기 부진 등으로 위기감이 커질 대로 커진 한국 등 신흥국 경제는 이번 사태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러시아 귀속' 압도적 찬성

16일(현지시간) 실시된 주민 투표에서 크림자치공화국 주민의 절대 다수인 96.6%가 러시아 귀속에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21일 하원 심의를 시작으로 상원 승인, 대통령 서명 등 크림 귀속 절차를 서두를 예정이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서방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과 국제사회는 (투표 결과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서방, 경제 제재 경고

서방의 러시아 경제 제재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17일 EU 외무장관들은 러시아를 상대로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등의 제재를 공식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미 러시아 주가지수는 올 초 대비 20%나 폭락했다.

러시아 10대 그룹인 알리셰르 우스마노프 그룹의 기업 가치는 지난주에만 66억 달러(약 7조1539억원)나 증발했다. 루블화 가치는 사상 최저치로 추락했고 러시아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9.7%까지 치솟았다.

러시아 주요 은행과 기업들도 미국과 유럽의 제재 강화에 대비해 서방 금융권에서 수십억 달러를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러시아는 크림반도 합병으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복속에 따른 경제 부담은 5년간 매년 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성장률 0.23%p 하락 우려

신흥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천연가스와 곡물 등 원자재 시장의 요동이 불가피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특히 유럽 천연가스의 25%를 공급하는 러시아가 중단 조치를 취하면 세계경제는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러시아가 세계 6대 곡물 수출국인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길을 막겠다고 경고하고 있어 곡물 가격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 중단 사례와 국제유가 변동을 비교한 결과 크림반도의 긴장 국면이 3개월간 계속되면 천연가스는 20%, 유가는 10% 이상 상승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년간 0.23%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흥시장에서의 투자자 이탈을 가속화시키는 '방아쇠'가 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영국 국제투자연구소 트러스티드소스의 크리스토퍼 그랜빌 소장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는 위협만으로 충분하다"며 "실행되면 세계경제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병연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전략적 비축유 방출과 셰일가스 수출 확대 등으로 천연가스 가격 급등 부담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며 "국내 경제와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은 단기 조정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러시아 귀속 자축! 16일(현지시간) 실시된 우크라이나 크림자치공화국의 러시아 귀속 주민 투표 결과가 96.6% 찬성으로 나오자 친(親)러시아 주민들이 크림자치공화국 심페로폴의 레닌광장에서 러시아 국기 등을 흔들며 자축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흡연 단속도 '파파라치' 활용

7월부터 지도원제 운영

정부가 '공인(公認) 금연 파파라치'를 활용해 흡연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개정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에 따라 올해 7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금연지도원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연지도원 제도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를 감시·계도하고 시설 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연지도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은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또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흡연 폐해로 인해 낭비되는 진료비, 작업 손실, 인적 손실 등의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직무 범위와 교육 내용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오는 31일까지 국민 건강 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2012년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합동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은 시설 주요 이용자의 이용 시간에 맞춰 이뤄지며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심야 시간 및 휴일에도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적발된 위반자(업소)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복지부는 합동 단속 기간 동안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금연 캠페인, 청소년 서포터스 구성 등 금연환경 조성사업을 병행 실시한다.

한편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5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황재용기자 hsoul38@

도봉우체국 개국 기념식수 서울지방우정청은 14일 서울도봉우체국(서울 도봉구 노해로 150)이 개국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이동진 도봉구청장·박주석 서울도봉우체국장·김기덕 서울지방우정청장·유인태 국회의원(왼쪽 셋째부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수를 하고 있다. /서울지방우정청

신임 포스코건설 사장의 숙제

기자 수첩
박 선 옥
<경제산업부 기자>

포스코건설 신임 대표이사 사장이 '황태현' 포스코건설 전 부사장으로 확정됐다.

황 신임 사장은 건설·재무 분야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물로, 그룹의 그늘에서 벗어나 포스코건설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포스코건설의 재무구조는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숨어 있는 위험요소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예컨대 포스코건설이 작년 3분기 보유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은 4118억원에 불과하다. 10대 건설사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송도 개발과 관련한 2조 2700억원의 PF 대출금이 자산유동화증권과 자산유동화기업어음, 전자단기사채 등으로 리파이낸싱됐다. PF로 잡히지만 않을 뿐 리스크는 포스코건설이 안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포스코건설의 신용등급 AA-는 사실상 그룹의 지원 덕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AA급으로 평가받는 회사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있지만 그룹이라는 배경 없이 포스코건설이 이들과 같은 등급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자산규모, 매출 등은 차치하더라도 현대건설은 5년 연속 시공 순위 1위를 지켰고, 삼성물산은 아파트 브랜드 래미안이 15년 연속 소비자가 뽑은 브랜드 1위에 뽑힐 정도로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황태현호의 출범을 계기로 건설·재무 분야에서 한층 더 단단해진 포스코건설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

위·변조된 군수품 무더기…충격

2,700여건 시험성적서 조작 드러나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부품 및 자재가 국산 무기에 무더기 납품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200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7년간 납품된 군수품 28만199건의 공인 시험성적서를 검증한 결과, 241개 군납업체가 2749건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장병들의 먹거리와 피복부터 전차, 헬기, 전투기 등 무기체계 부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시험성적서가 조작됐다.

가장 많은 불량 부품이 사용된 무기는 K21 장갑차로 무려 268개의 시험성적서가 위·변조됐다. K9 자주포, K2 전차에도 각각 197개, 146개의 불량 부품이 들어갔다. 이들 기동 화력장비에 납품된 부품의 위·변조는 2465건으로 전체의 89.7%에 달했다.

공군 주력 전투기인 KF16은 브레이크디스크 등 부품 2건의 시험성적서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고, 국내 기술로 개발된 기동헬기인 수리온(KUP-1)의 경우 윈도기어 등 8건의 불량 부품이 납품돼 장기간 운용 시 내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해군 무기 중에는 차기호위함 울산급 호위함에 사용된 펌프 주물 제품 등이 성능 및 내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불량 부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병 급식 재료 중에는 장류, 소스류, 가공식품 등 27건의 시험성적서가 변조됐다. 특히 고추맛기름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유해물질로 지정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장병들의 운동복, 전투복, 모자 등 피복에도 내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불량 재질이 사용됐다.

국방기술품질원은 "군과 협조해 해당 품목을 전량 정상품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해당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23개 공인시험기관과 상호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 시험기관이 발급한 성적서 원본을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육군의 주력 화기인 K1A1 전차, K21 보병전투차량, K9 자주포 등 200여 대가 지난달 경기도 여주시 양촌리훈련장에서 열린 전투장비 기동훈련에서 위용을 뽐내고 있다. 하지만 국방기술품질원 조사 결과, 이들 장비에는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불량 부품이 상당수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박원순·정몽준 오차범위 접전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과 민주당 소속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 선거 가상대결에서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의 싸움을 펼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신문과 글로벌리서치가 지난 15일 서울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화 여론조사(신뢰수준 95% ±3.1%포인트) 결과, 박 시장은 정 의원과의 양자 대결에서 50.4%의 지지율로 43.6%를 얻은 정 의원을 6.8%포인트 앞섰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를 묻는 항목에서는 정 의원이 46.1%로 가장 높았다. 이어 김 전 총리 27.2%, 이혜훈 최고위원은 6.1% 순이었다. /조현정기자 jhj@

분위기 익어가는 한·일 정상회담

청와대가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회담이나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일본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 건설적 대화가 가능한 여건이 조성되면 우리로서는 대화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일본과의 정상회담 여부에 대해 "아직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취해왔던 박근혜 정부가 이날은 "대화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원론적이지만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을 표현한 것이다.

다만 민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대화를 위한 대화보다는 양국 정상 간 생산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생산적 대화 여건을 위해서는 일본이 역사 문제와 과거사 현안 등에 대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할 것"이라며 대화의 조건을 분명하게 밝혔다.

청와대가 이처럼 '조건부 대화 의지'를 표명한 것은 미국의 화해 압력을 무시하기 어려운 국면에서 자칫 떠밀리듯 회담에 응했다가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 등을 감안한 조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조현정기자 jhj@

뉴스 & 뉴스

3월 임시국회 20일 여 단독소집

● 20일 3월 임시국회가 새누리당 단독 소집으로 열린다. 17일 국회 사무처는 최경환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155명 명의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해옴에 따라 20일 오후 2시 임시회를 집회한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3차 핵안보 정상회의 참석하기에 앞서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 공포

● 서울시가 17일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한 월 2회 의무휴업제도의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모든 대형마트가 같은 날 휴업하도록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공포했다.

현재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인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은 오전 10시까지 2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종편채널 재승인 기준 넘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19일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7일 전체회의에서 TV조선, JTBC, 채널A 등 3개 종편채널과 뉴스Y 등 1개 보도채널을 대상으로 재승인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변경된 사업계획서 내용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19일 전체회의에서 재승인 여부를 의결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 10일부터 종편·보도채널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작업을 진행한 결과 TV조선(684.73점), JTBC(727.01점), 채널A(684.06점), 뉴스Y(719.16점) 등 종편·보도채널 모두 재승인 기준인 650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무난히 재승인 심사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종편 기본 점수는 650점 이상이면 재승인되는 만큼 그 부분은 새로 논의되기 어렵다"며 "다만 새롭게 제출된 사업계획서가 기존과 달라져 이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승인 유효 기간이 11월 30일까지인 MBN은 5월 이후 재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영기자 ljy0403@

의료계 총파업 한숨 돌릴 듯

원격진료 시범사업 등 쟁점 의견 접근

의료계 총파업이 진정 국면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용산구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원격진료 등 총파업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4일로 예정된 의협의 전면 휴진이 철회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와 의협에 따르면 의·정은 우선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처리에 있어서 시범 사업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원격진료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시범 사업은 오는 4월 시작되며 시범 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의협의 의견을 반영해 의·정이 공동으로 수행키로 했다.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투자 활성화 대책에 대한 부분도 논의됐다. 의·정은 우려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만들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하는 등 건정심의 객관성을 제고해 건강보험 구조를 개선키로 했으며 수가 협상이 결렬됐을 때는 공정한 수가 결정이 가능하도록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마련키로 합의했다.

게다가 이번 협의안에는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공의 수련 환경 지침에 명시된 '최대 주당 88시간 수련' 지침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이전에 합의된 수련 환경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키로 했다.

또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가칭)를 신설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오는 5월까지 전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련 환경 평가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의협은 이번 의·정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17일 오후 6시부터 20일 정오까지 회원 투표를 진행해 전면 휴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벌써 벚꽃이… 봄기운이 완연한 17일 오후 경남 창원시청 앞 활짝 핀 벚꽃 아래에서 2명의 여성이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다. /연합뉴스

한강에 가마우지 폐사체 발견

한강랜드 상류 100m 지점에서 가마우지 폐사체가 발견돼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10분께 한강랜드를 지나던 한 시민이 가마우지 사체를 발견해 다산콜센터에 신고했고, 즉시 이를 수거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역을 의뢰했다. 검사 결과는 1주일 내 통보된다.

지난 13일 과천에서 발견된 큰기러기 폐사체가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어 서울까지 AI 방역망이 뚫린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 복지건강실 관계자는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와 별도로 시내 모든 공원을 대상으로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준기자

자유학기제 이런 거예요! 수서중학교 학생들이 17일 오후 서울 예원학교에서 열린 '자유학기제 및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 연구학교 발대식'에서 자유학기제를 내용으로 한 뮤지컬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 동안 중간·기말고사를 보지 않고 진로와 관련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연합뉴스

개구리 산란시기 해마다 빨라져

개구리의 산란 시기가 해마다 빨라지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리산 북방산개구리 산란 시기를 관찰한 결과 올해는 지난해보다 3일 이른 지난달 1일부터 산란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공단은 2010년부터 지리산 북방산개구리의 산란 시기를 관찰하고 있는데, 2010년 2월 22일, 2011년과 2012년에는 2월 23일부터 산란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2월 4일이었다.

북방산개구리는 일정 기간 따뜻한 기온이 이어지고 나서 비가 내리면 산란을 시작한다. 환경부는 2010년 7월 북방산개구리를 기후변화 민감 지표 종으로 지정했다. /윤다혜기자

유우성씨 북한에 26억 송금 의혹

2010년 수수료 4억 챙겨

'서울시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가 과거 대북 송금 브로커로 활동하며 거액을 벌어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이 2010년 유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씨가 2007년 2월부터 2009년 8월까지 국내 정착한 탈북자들의 부탁을 받고 중국과 북한에 거주하는 자신의 친인척을 동원해 북한 현지의 탈북자 가족들에게 26억원을 배달하고 수수료로 4억원을 챙긴 정황을 포착했다.

동부지검은 당시 유씨가 다른 사업자를 도와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데다 북한 송금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구속된 국정원 협조자 김모씨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위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유씨가 간첩이 맞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다.

그러나 유씨는 "26억원이라는 돈은 만져본 적도 없다"며 "먼 친척 중에 중국에서 환치기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들어줬고 조선족들 중 한국에 와 있는 사람들이 돈을 부칠 때 이 통장으로 부친 것"이라고 말했다.

화교 출신인 유씨는 북한 국적의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입국, 북한 보위부의 지령을 받고 여동생을 통해 탈북자 200여 명의 신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다. /김민준기자 mjkim@

청원경찰 나이제한 없이 채용

만 50세 미만으로 제한된 청원경찰의 임용 상한 연령을 폐지하는 청원경찰법 시행령이 18일 시행된다.

기존 법령은 청원경찰의 임용 자격을 병역을 필한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인 사람으로 제한해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령자도 능력만 있으면 청원경찰로 취업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연령 상한을 없앴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국가기관과 기업 등 총 1730개 시설에 1만3533명의 청원경찰이 일하고 있다. /윤다혜기자

금천구 봄맞이대청소 실시

서울시 금천구는 새봄을 맞아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오는 20일 '새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대청소는 클린마을 봉사단, 주민, 공무원 등 800여 명이 참여하며 오전 5시부터 실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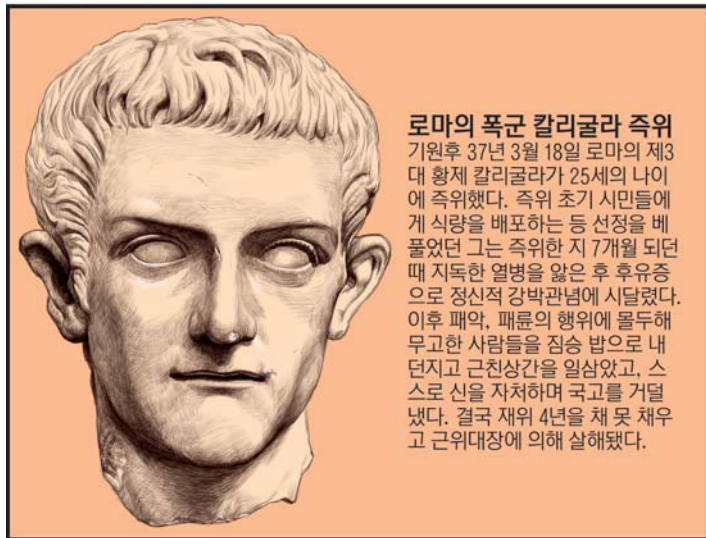
직장인대상 건강관리 지원

서울시 영등포구 보건소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3060 직장인 대상 검진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간호사·영양사·운동처방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팀을 파견해 직장인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부설주차장 용도 집중점검

서울시 중랑구는 오는 9월까지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주차장 기능을 하지 않는 곳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점검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 변경 및 기능 유지·관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로마의 폭군 칼리굴라 즉위

기원후 37년 3월 18일 로마의 제3대 황제 칼리굴라가 25세의 나이에 즉위했다. 즉위 초기 시민들에게 식량을 배포하는 등 선정을 베풀었던 그는 즉위한 지 7개월 되던 때 지독한 열병을 앓은 후 후유증으로 정신적 강박관념에 시달렸다. 이후 패악, 패륜의 행위에 몰두해 무고한 사람들을 짐승 밥으로 내던지고 근친상간을 일삼았고, 스스로 신을 자처하며 국고를 거덜냈다. 결국 재위 4년을 채 못 채우고 근위대장에 의해 살해됐다.

장애인올림픽 폐막 2014 장애인동계올림픽(Paralympic) 폐회식이 16일(현지시간) 러시아 소치 해안 클러스터 피시트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리고 있다. /뉴시스

50~60대 여성 취업전선 주도

비경제 활동인구 큰폭 줄어

올해 들어 집에서 쉬거나 가사를 돌봤던 비경제활동인구가 노동시장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월 고용 동향을 분석한 결과, 비경제활동인구가 55만2000명 줄었다고 17일 밝혔다. IMF 외환위기가 회복기에 들어선 2000년 2월에 비경제활동인구 감소 규모가 27만900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배 수준이다.

이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던 50~60대 여성이 대거 직업 전선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 2월 취업자 수 증가는 50~60대 여성이 주도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83만5000명 증가했는데 50대 이상이 58만5000명이었다. 여성은 38만2000명이 늘었고, 15~19세 청년층은 14만8000명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과거 취업자 수의 대폭 증가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회복 과정의 일시적인 현상이었으나 최근 추세는 비경제활동인구 감소를 동반하고 있어 노동시장의 긍정적인 패턴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지난해 10월 6000명 증가한 뒤 11월 10만8000명 줄었고, 12월에는 17만2000명 감소했다. 지난 1월에도 33만2000명이 줄어 꾸준하게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비경제활동인구 감소는 유형별로 가사(28만2000명), 쉬었음(26만3000명)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 30~40대 여성, 40대 남성이 노동시장에 대거 들어온 것으로 고용부는 분석했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대포물건 사용·개설 처벌한다

대포폰과 대포차, 대포통장 등 3대 ‘대포 물건’을 사용하거나 만들어준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경찰청은 17일 대포폰을 이용한 범죄자뿐 아니라 개설해준 명의자도 처벌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미래창조과학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사용자가 명의자가 아닌 경우 단순한 차명폰인지, 범죄에 쓸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포폰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는 대포폰이 범죄에 악용됐을 경우로 한정해 관련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대포차 운전자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운전자가 명의 이전 책임이 없어도 자동차가 대포차인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 처벌하는 규정을 국토해양부와 논의하고 있다.

/김민준기자 mjkim@

문답풀이

건설·벌목업 고용·산재보험료 자진신고·납부 가이드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자진 신고·납부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2013년도 확정보험료와 2014년도 개산(추정)보험료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이니만큼, Q&A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

31일까지 신고·납부…기한 넘기면 연체금
2013년 확정, 2014년은 추정분 신고해야

Q1. 누가, 언제까지 신고?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의 사업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2012년 1월 21일 이전)는 2014년 3월 31일(월요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를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Q2. 신고할 내용은 무엇인가?

해당 사업주는 보험료신고서에 고용·산재보험 2013년도 확정보험료와 2014년도 개산보험료를 기재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확정보험료는 2013년도에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고, 개산보험료는 2014년도에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다만 2014년도 추정 보수총액이 2013년도 확정 보수총액의 100분의 70~100분의 130 범위 내에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2013년도 확정 보수총액과 동일하게 신고해야 한다.

Q3.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방문하거나 전자팩스, 우편,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개산보험료가 고용·산재 각각 10만원 이상인 경우 토털서비스로 전자신고 시에 경감 혜택(5000원)을 받을 수 있다.

Q4. 납부 방법은 무엇인가?

① 확정보험료는 일시납, 개산보험료는 일시납 또는 4기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산보험료를 기한 내 일시납하는 경우 3%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보험료신고서에 동봉된 납부서에 납부할 금액을 직접 기재해 시중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보험료 신고 기간 내에 신용카드로 2014년 개산보험료(10만원 이상)를 일시납하는 경우 2~9개월까지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

Q5.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올해 3월 31일(월요일)까지 2013년도 확정보험료와 2014년도 개산보험료(1기 분납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금과 확정보험료 차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Q6. 주의해야 할 점은?

① 일시납과 분납 1기 보험료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니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②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2012년 1월 21일 이전 가입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보수액 192만원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0.25%)을 곱한 금액을 신고하고, 일시 납부해야 한다.

③ 올해부터 65세 이상자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기존에 64세가 된 날부터 면제되던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단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만 납부).

④ 2013년도 고용보험 실업급여 확정보험료는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전후 기간별(1월 1일~6월 30일, 7월 1일~12월 31일)로 보수총액을 구분해 산정·신고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카드사 고객정보 추가유통 드러나

대출 중개업자 5명 또 구속

KB국민·롯데·NH농협카드에서 유출된 카드 소지자의 개인정보가 추가로 팔린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정보를 사들인 대출중개업자 5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변형철)은 “지난 14일 구속 기소한 4명 외에 또 다른 대출중개업자 5명이 유출된 개인정보를 구입한 뒤 대출 영업에 이용한 혐의가 있어 추가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외에 10여 명의 대출 중개업자를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어서 사법 처리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중에 유통된 정보 유출 건수 역시 14일 검찰이 발표한 8200만여 건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추가로 구속된 대출중개업자 5명은 대출 광고업자 조모(36·재판 중)씨에게 2012~2013년 사이 수백만원을 주거나 공짜로 개인정보를 70만~400만 건씩 넘겨받아 대출 영업에 활용했다.

검찰은 새 나간 개인정보가 일단 대출 영업에만 사용됐고 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된 정황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용기기자 kahn@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global

metro Russia

На вооруже... может пост...

Проект. Сейчас робот с двигателем на основе искусственных мышц только разрабатывается

metro Mexico

El amor por los selfies atrapa a los mexicanos

셀카찍기 중남미서 멕시코가 1위

멕시코 사람들이 중남미 33개국 중 가장 많은 '셀카'를 찍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시사주간지 타임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의 몬테레이, 누에보레온 및 산 후안데푸에르토리코에서 셀카가 많이 올라왔다. 이번 순위는 사진 공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세계 459개의 도시 사진 40만 장을 분석한 결과다. 몬테레이가 40위, 누에보레온은 53위를 차지했다. 필리핀의 마카티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셀카'를 올려 1위에 이름을 올렸다.

metro France

Dévalez les pistes

Sport

Dernier volet de la série sur les activités sportives originales à la montagne. Si j'ai réussi à passer le week-end sans faire de ski, j'ai quand même chaussé les spatules pour tester le ski joëring, une façon différente de goûter au plaisir de la glisse. Ici, la progression dans la neige s'effectue grâce à la force d'un chien, d'un véhicule motorisé ou d'un cheval, la forme la plus courante. A l'origine, le ski joëring était un moyen de transport scandinave, avant d'évoluer au fil des années vers le plaisir et la compétition. En France, c'est Jacques Fillietroz qui va démocratiser l'activité à partir des années 1980.

말과 함께 스키 타기 인기몰이

프랑스에서 말과 함께 스키를 즐기는 이색 스포츠가 인기다. 산악스키를 착용한 뒤 말에 연결된 끈을 잡고 속도를 즐기는 이 활주 스포츠는 '스키 조어링'이라 불린다. 스칸디나비아 지역에서 교통수단으로 활용됐던 스키 조어링은 몇 년 전부터 프랑스에서 인기 스포츠로 새롭게 변신했다. 스키 조어링이 프랑스에 들어온 건 1980년부터다. 현재 프랑스에선 20여 개의 사이트가 스키 조어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수중 바이오닉 로봇 공개 '화제'

물고기 모양·움직임 본떠 제작… 수송함 적합

최근 러시아 두브나대학이 물고기의 모양과 움직임을 본떠 만든 수중 바이오닉 로봇의 모형을 공개해 화제다.

로봇 프로젝트 책임자 드미트리 크릴스키는 "바이오닉 로봇은 향후 러시아 해군의 핵심 장비로 활용될 것"이라며 "인공 근육 덕분에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가능해 해군의 정보수집 또는 기뢰 제거 등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인공 근육은 로봇이 대형 어류의 움직임을 재현하는 데 이용됐다"며 "보통의 엔진으로는 로봇의 3D 움직임을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생물의 근육과 매우 흡사한 인공 근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로봇들은 그 움직임뿐만 아니라 외형도 대형 참치나 가오리의 모양과 흡사하다. 크릴스키는 "가오리나 참치의 생김새와 움직임을 로봇에 그대로 반영했다"면서 "가오리의 움직임은 물결이 치는 형상이며 참치는 강력한 꼬리와 지느러미를 통해 움직인다"고 말했다.

수중 바이오닉 로봇의 무게는 5kg 정도이며 3m 깊이까지 잠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봇은 또한 최대 1kg의 화물 수송, 열흘간 무인 조정도 가능하다.

군사학 박사 콘스탄틴 시브코프는 "이번에 개발된 로봇은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다양한 크기의 로봇을 개발하면 잠수함과 함선이 손상될 경우 필요한 부품이나 물자를 나르는 수송책으로 사용하는 등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로봇은 향후 해상 전투의 핵심 요소로 러시아 해군력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영국의 군사 컨설팅 업체 IHS 제인스의 '2014년 국방 예산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의 올해 국방 예산은 780억 달러(약 83조4600억원)다. 또한 러시아는 군 현대화를 위해 앞으로 3년간 국방 예산을 44% 늘릴 계획이다.

/드미트리 벨랴예프 기자·정리=조선미기자

metro Brazil

Prefeitura decreta feriado em dias de jogos na Copa

월드컵 열리는 날 모두 휴일로 지정

리우데자네이루市

'축구의 나라'라는 명성에 걸맞게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시가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날을 모두 휴일로 지정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일간지 지아리우 오피시아우를 통해 공포된 이번 발표를 보면 총 이틀간의 부분 휴무와 하루의 온전한 휴일이 주어지는 셈이다.

시 측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출퇴근 시간의 교통 혼잡을 피하고 차량 통행을 원활히 해 관람객들이 경기가 열릴 마라카나 경기장으로 편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휴일은 스페인과 칠레의 경기가 열리는 6월 18일과 에콰도르와 프랑스전이 있을 25일 정오 이후로 정해졌으며 7월 4일은 하루 전체가 휴일로 지정됐다. 그러나 휴일인 사흘 동안에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보건소와 병원, 대중교통 회사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시에서는 결승전을 비롯해 총 7개의 경기가 있을 예정이나 이 중 4개는 주말에 열려 3일만이 휴일로 지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2일 판매가 시작된 지 다섯 시간 만에 브라질 월드컵 티켓 20만3330장이 모두 팔려나갔다. 피파는 티켓 구매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도시로 리우데자네이루를 꼽았으며 상파울루가 그 뒤를 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지금까지 개막식과 결승전, 준결승전을 제외한 60개 경기 34만5000장의 티켓 판매가 모두 완료됐다.

피파는 다음달 15일부터 공식 사이트와 12개 개최 도시의 판매처를 통해 선착순으로 마지막 추가 티켓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리=손동완 인턴기자

market index <17일>

코스피 1927.53 (+7.63)

코스닥 535.82 (−8.45)

금리(국고채 3년) 2.85 (+0.02)

환율(원·달러) 1067.30 (−3.20)

불법 대부광고 속 전화번호 정지

불법 대부광고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이 중지되고 대부계약서의 열람 범위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 등을 규정한 '대부업 등의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18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대부광고에 대해 시·도지사는 미래부에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허위·과장 광고의 경우 중단을 명하고 이를 어길 시에도 전화번호 이용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또 대부업자에게 계약서 열람, 증명서 발급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자를 기존 계약자에서 대리인까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된 대부업법은 9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정원기자

뉴스 & 뉴스

13억 시계…빅벤 종소리 알람
17일 서울 현대백화점 본점에서 영국 빅벤 종소리로 시간을 알려주는 13억 상당의 '히브리스 메카니카 그랑소내리'(가운데) 등 스위스 명품 예거 르쿨트르의 시계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장기 저축성 예금액 첫 '−'

●지난해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장기 저축성 예금은 −2조4000억원으로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한국은행이 17일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20조원가량 급감한 규모다.

반면 결제 및 단기 저축성 예금은 5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5조원 급증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 금리가 낮고 경기 회복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2009년처럼 자금이 단기 부동화 경향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현정기자

대기업 사외이사는 '예스맨'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10대 그룹 사외이사 341명 중 작년 한 해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이사회에서 경영진의 의견에 반대 목소리를 낸 인사는 단 두 명에 불과했다.

재벌 그룹들은 올해도 정기 주주총회에서 권력기관 및 그룹 관계자 출신 사외이사들을 무더기로 선임했거나 할 예정이다.

올해도 일부 그룹에선 경제민주화 압박에 맞서기 위한 '방패막이용' 인사 영입에 박차를 가하는 등 정기 주주총회에서 권력기관 및 그룹 관계자 출신 사외이사들을 이미 선임했거나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아란기자

보험사 이유있는 '낙하산 이사'

감독당국 출신 끊이지 않는 배경엔 "바람막이 돼 업무 도움"

악어와 악어새의 공생 같은 금융권 낙하산 인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정관계의 무분별한 인사 정책도 문제지만 당사자인 금융사나 유관기관들 또한 바람막이 역할로 이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주주총회를 개최한 보험회사들의 사외이사들은 대부분 금융감독원 등 정관계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 이종남 이사는 증권감독원 부원장을, 박봉흠 이사는 기획예산처 장관과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각각 역임했다.

삼성화재는 손병조 전 관세청 차장이 사외이사로, 조병진 전 금감원 국장이 상근 감사위원으로 있으며 동부화재도 재무부 차관과 보험감독원장 등을 지낸 이수휴 사외이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등을 역임한 박상용 사외이사를 재선임했다.

롯데손보 역시 금감원 부원장과 보험개발원장을 맡았던 강영구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을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비단 보험권뿐 아니라 금감원 등 정관계 인사들의 상당수가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내정됐거나 임명됐다. 김성화 전 금감원 신용감독국장은 신한카드 감사, 전광수 전 금융감독국장과 이명수 전 기업공시국 팀장은 메리츠금융지주 사외이사, 양성용 금감원 전 부원장보는 삼성카드 사외이사로 가거나 선임될 예정이다.

대구은행 감사로 내정됐던 이석우 금감원 감사실 국장은 여론이 악화되자 조직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이를 고사하기도 했다.

끊임없는 지적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금융계에 낙하산 인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금융권의 수요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어차피 누군가는 와야 하는데 이왕 선임될 상황이면 정부나 감독 당국과 소통이 가능해 방패막이가 돼 주면 더 좋다는 것이다.

한 금융 유관 기관의 관계자는 "최고경영자의 경우 낙하산 인사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사외이사나 감사는 또 문제가 다르다"며 "외부에서는 불합리한 시각으로 바라보지만 우리로서는 정관계 출신이 내려와주는 것이 훨씬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금융업권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정관계 자체적으로 정화 노력을 하지 않는 한 낙하산 논란은 당분간 인사철마다 이어질 전망이다. /박정원기자 pjw89@metroseoul.co.kr

"KB 경영진, 개인정보 유출 책임져!" 17일 서울 중구 KB금융지주 본사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 지부 조합원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그룹 흔드는 계열사간 '신용 도미노'

현대·KT·대한항공 등

최근 한 계열사의 재무구조 악화가 다른 계열사의 신용도로 전이되는 '신용 도미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신용평가는 지난 14일 현대상선과 현대엘리베이터, 현대로지스틱스의 무보증 회사채 신용등급을 각각 세 단계씩 강등했다. 세 회사의 신용등급은 모두 투기 등급인 BB+(안정적)으로 내려앉았다.

한국기업평가도 같은 날 현대상선과 현대로지스틱스의 회사채 신용등급을 각각 BBB+(안정적)에서 투기 등급 직전 단계인 BBB−(부정적)으로 두 단계씩 강등했다.

앞서 지난 13일 나이스신용평가는 현대상선의 장기 신용등급은 기존 BBB+(부정적)에서 BBB로 한 단계 낮추고 추가 등급 하향 검토 대상에 올렸다. 현대엘리베이터, 현대로지스틱스의 신용등급은 현 BBB+로 유지했지만 등급 하향 검토 대상에 포함했다. 현대상선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이 나빠지면서 다른 그룹 계열사에 미칠 파급력이 우려 요인으로 작용했다.

현대그룹은 현대로지스틱스에서 현대엘리베이터→현대상선→현대로지스틱스로 연결되는 순환출자 구조로 이뤄져 있다.

KT그룹 계열사들도 최근 KT ENS의 법정관리 신청의 여파로 줄줄이 등급 하향 검토 대상에 올랐다. KT가 3000억원대의 대출사기 사건에 연루된 KT ENS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자, 신평사들은 KT의 영향력을 배제한 계열사 등급 매기기에 나섰다.

한신평은 KT ENS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난 12일 KT렌탈, KT캐피탈, KT에스테이트, KT오토리스, KT텔레캅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검토'로 내렸다.

최근 대한항공 역시 한진해운이 유동성 위기로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이로 인한 신용도 타격을 입을 우려가 제기됐다. /김현정기자 hjkim1@

기아 레이·모닝 총 20만대 리콜

기아차의 레이와 모닝이 의무적 결함 시정 요건을 초과해 대규모 리콜된다.

환경부는 '레이 1.0 가솔린' '모닝 1.0 가솔린' '레이 1.0 Bi-fuel LPI' '모닝 1.0 Bi-fuel' 등 4차종의 PCV 밸브 내구성을 개선하기 위해 기아자동차가 결함 시정(리콜)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 차종은 '레이 1.0 가솔린' 3만2047대와 '레이 1.0 Bi-fuel LPI' '모닝 1.0 가솔린', '모닝 1.0 Bi-fuel LPI' 3차종 16만4903대 등 총 20만여 대다.

현재까지 판매된 이들 차종은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PCV 밸브 니들을 사용했으며 이 부품은 운행 과정 중 마모되면 흡기매니폴드 내부로 엔진 오일이 유입되는 문제를 일으켰다. 그 결과 엔진 오일이 연료와 함께 연소돼 미세먼지가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백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기아자동차는 2011년 1월 17일부터 2012년 7월 16일까지 생산된 위 4차종 소유자에 대해 PCV 밸브 니들의 재질을 기존 플라스틱에서 스틸로 무상 교체할 계획이다. /임의택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민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959-2100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모으면 모을수록 대박 혜택!

혜택 가득한 자유
하나 Free

자유여행을 쉽고 편하게 준비하는 방법
"하나Free" 혜택!
모으면 모을수록 커지는 대박 혜택을
꼼꼼히 챙기고 많은 혜택 누리세요~!

하나Free 상품 동시 구매 혜택!

하나Free상품	할인혜택	마일리지혜택
자유여행만들기 항공권 + 해외호텔 + 현지투어 + 패스/입장권	최대 30%	
항공권 + 해외호텔	해외호텔 10% (단, 료칸, ibis, Adagio호텔체인 할인제외)	10,000 마일리지 추가적립
항공권 + 현지투어 + 패스/입장권	현지투어 3%+ 패스 5%/입장권 3% (현지투어, 패스, 입장권 중 1개 상품만 구매해도 동일 할인적용)	10,000 마일리지 추가적립
해외호텔 + 현지투어 + 패스/입장권	현지투어 3%+ 패스 5%/입장권 3% (현지투어, 패스, 입장권 중 1개 상품만 구매해도 동일 할인적용)	더블 마일리지 적립

- 하나투어닷컴을 통한 온라인 예약에 한해 혜택을 드립니다.
- 동시구매는 반드시 같은날 자정 이전에 모든 예약을 하셔야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 할인 혜택은 반드시 전화로 요청을 하셔야만 할인 적용됩니다. (단, 자유여행만들기의 상품조회시 이미 할인 적용 된 가격)
- 하나투어마일리지클럽에 가입하셔야만 마일리지 적립을 받으며 예약코드당 예약자 한 분에게만 적립됩니다.
- 추가 마일리지 적립은 항공출발일 및 호텔투숙일 기준으로 그 다음달 10일 이전에 적립됩니다.
- 현지투어, 패스, 입장권은 최대 할인율로 상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더블마일리지 적립의 경우 상품가격 외에 추가되는 비용이 있을시 추가비용에 대한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습니다.

예약문의 | 국번없이 전국 어디서나!
1566-0223

www.hanatourist.com

은행창구 신분증 위·변조 즉시확인 시스템 시범 운영 안전행정부는 17일부터 우리은행 6개 영업점, 부산은행 5개 영업점, 외환은행 2개 영업점에서 신분증 위조와 변조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용 신분증 확인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창구별로 설치된 스캐너에 신분증을 넣으면 사진을 포함해 진위를 확인하는 데 1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연합뉴스

엔저 비웃은 무역흑자 신기록

지난해 441억 달러 일본 사상 최대 적자

엔저 기조에도 불구, 지난해 일본이 사상 최대의 무역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의 흑자폭은 수출 경쟁력 향상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7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무역수지는 1176억 달러로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한 해 엔저로 인한 수출 피해에 전전긍긍한 한국은 441억 달러의 사상 가장 많은 무역 흑자를 냈다.

과거 엔저 여파에 한국의 무역수지가 2004년 294억 달러에서 2007년 146억 달러로 반 토막 났던 것과 다른 양상이다.

일본의 부진은 엔저로 가격 경쟁력이 커졌는데도 제품 단가 인하보다 이익 창출에 치중한 탓으로 풀이됐다. 연구원은 "일본의 지난해 달러 기준 수출액은 10.5% 감소했다"며 "제품 단가를 내리지 않아 제조업의 경쟁력이 하락하면서 수출이 부진했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전기·전자 제품과 자동차의 해외 생산 비중이 40%를 웃도는 점도 엔저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한 요인으로 지적됐다.

반면 한국은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개선되는 추세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일본이 13.0% 급감했으나 한국은 12.7% 늘어났다. 자동차(부품 포함) 수출의 경우 일본은 7.4% 줄었지만 한국은 3.9% 증가했다.

/김현정기자 hjkim1@

상호금융 조합 제재시 중앙회 홈피 공시

앞으로는 신협중앙회 등 각 상호금융중앙회가 조합에 대해 조치한 제재 내용을 홈페이지에 직접 공시한다. 또 지속·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조합의 일부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중앙회가 통일된 제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중앙회가 조합에 대해 조치하는 제재 내용을 공시하는 제도가 없어 감시, 견제 등 시장 규율 기능 작동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시 방법은 중앙회가 조합에 대해 조치한 내용을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게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공시 대상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직무정지' 등이다.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제재 기준도 정비된다. 현재 각 중앙회는 설립근거법 등에 따라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모호해 통일성·형평성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정원기자

삼성 갤럭시 코어 어드밴스 국립 서울맹학교에 기부

삼성전자가 최근 국립 시각장애 특수학교인 서울맹학교에 스마트폰 사용 접근성을 개선한 갤럭시 코어 어드밴스와 특화 액세서리를 기부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전달식은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이 주관하고 삼성전자가 후원한 것으로, 이유훈 서울맹학교장·신동렬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장·조시정 삼성전자 사회봉사단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달 출시된 갤럭시 코어 어드밴스는 ▲문서를 스캔해 텍스트를 음성으로 안내해주는 '옵티컬 스캔' ▲인물의 위치를 음성으로 알려주는 '음성 지원 카메라' 등을 탑재했다. /김태균기자 ksgit@

삼성전자 사회봉사단 사무국장 조시정(왼쪽) 상무가 서울맹학교 학생에게 제품들을 전달하는 모습. /삼성전자 제공

<환매조건부채권>

RP의 진화 '절세+고금리'

소장펀드 가입시 우대 상품 봇물… 적금처럼 장기투자형도

특판 환매조건부채권(RP)의 인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17일 출시된 소득공제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와 결합해 절세와 고금리를 동시에 누리거나 적금처럼 장기로 붓는 '진화형' 상품이 눈길을 끌고 있다. RP는 은행·증권사 등 금융사가 일정 기간 후 확정 금리를 보태 다시 사들이는 조건으로 고객에게 채권을 판매하는 상품이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은퇴 자산 관리 프로그램인 '네오(Neo)50플랜'을 통해 종합자산관리계좌(CMA) RP형을 개설하고 소장펀드에 가입한 고객에게 연 3.7~4.2%의 금리를 적용한다.

적립식 가입은 1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20만원 넘는 금액을 자동이체할 경우 기본금리 2.4%에 1.3%의 우대금리를 더해준다. 최대 300만원으로 3개월 한도다.

소장펀드와 다른 상품을 합쳐 1000만원 이상 거치식으로 예치하면 매수 금액의 10% 한도로 우대금리 1.8%를 더한 연 4.2%의 금리를 적용한다. 역시 3개월 한도다.

유진투자증권은 소장펀드 가입자 선착순 6000명에게 최대 3개월간 '펀드성과확인기간'을 두고 연 6.0%의 RP 금리를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

유진투자증권의 기존 RP 금리인 2.45~2.65%와 비교해 파격적인 우대금리다.

일반적인 RP 상품은 증권사마다 매주 발 빠른 매진 행진을 보이며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KDB대우증권의 경우 지난해 특판 RP 상품을 내놓은 이후 지금까지 50주 연속 매진을 기록했다. 대우증권 RP 가입고객 수만 1만7000명, 가입 자금이 1조40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처음으로 RP 상품을 내놓은 NH농협증권도 마찬가지다. 특판 판매 기간 중 매주 월요일 오전에 그 주 물량이 동날 정도로 반응이 좋다.

원금 보장이 100% 되진 않지만 금융사가 부도가 나지 않는 한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적어 펀드 등 일반 금융투자 상품에 비해 안정성이 높은 점이 특징이다.

저금리 기조가 길어지면서 대개 3개월, 1년 등 단기 위주의 RP 시장에 3년 만기 장기투자 상품도 등장했다.

대우증권은 2030세대를 대상으로 3년 동안 적립식으로 붓는 연 4.0% 금리의 특판 RP를 지난 10일 선보였다. 가입 대상을 18세 이상 35세 미만으로 한정했으며 월 한도 20만원씩이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최근 고객들은 금융 상품의 종류가 무엇인지보다 금리 수준에 관심을 두는 편"이라며 "안정적이면서 은행 예·적금에 비해 금리가 높은 점이 호응을 얻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휴가 전 가방 미리 구입하세요' 17일 스웨덴 가방 브랜드 '툴레(THULE)' 팝업스토어에서 모델들이 캐리어와 백팩 등의 가방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측은 오는 20일까지 본점 6층 더 웨이브 매장에서 툴레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툴레 제공

국민연금 20년 가입자 평균 85만원 수급

지난해 363만명에 13조1113억 지급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3년 연금 수급자를 분석한 결과, 363만 명에게 13조1113억원의 연금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7만 명 2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69만 명, 2조6000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노령연금은 20년 이상 가입한 연금 수급자는 2008년 최초로 1만3000명에서 2013년 말 12만6000명으로 늘었고 이들은 현재 월평균 85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 100만원 이상 연금을 받는 수급자도 5만5000명으로 5년 전인 2009년 4000명보다 14.4배 증가했다.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연금 수급자도 현재 19만4747쌍으로 2010년 이후 연평균 26.4%씩 늘고 있다. 공단은 여성이 경제활동에 활발하게 참가하면서 여성 가입자 및 수급자 증가와 더불어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은퇴 부부가 기대하는 부부합산 최저생활비가 월 133만원 정도임을 고려할 때 신규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 월액 50만4000원(2013년 기준)을 각자 받으면, 부부가 총 100만원을 받기에 최저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공단은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올해에는 수급자와 연금 지급액 모두 각각 19만 명, 1조4701억원이 늘어나 총 382만 명 수급자에게 월 1조2151억원씩 총 14조5814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정원기자 pjw89@

소상공인-소비자 인연 담은 '네이버 광고 캠페인' 눈길

네이버는 소상공인 광고주들과 소비자들이 네이버 검색광고로 인연을 맺은 에피소드를 영상 광고로 제작한 '네이버 광고 캠페인: 검색 이야기'를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네이버 검색광고로 새로운 기회를 얻은 소상공인의 성공담과 검색으로 실생활에서 도움을 받은 소비자의 에피소드를 엮어 1분가량의 잔잔한 영상을 소개한다.

광고 캠페인은 '곤충 체험캠프'라는 키워드로 만나게 된 광고주와 소비자를 소재로 한 광고를 시작으로, 팅클발전소와 노점상 아주머니의 사연 등 모두 5편으로 진행된다.

앞으로 세 달간 방영될 이번 광고 캠페인 영상은 케이블 TV, 극장 등의 브라운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박성훈기자 zen@

20대 경제활동참가율 2년 연속 '여성>남성'

2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년 연속으로 남성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사람인은 통계청의 201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62%로 남성(61.2%)보다 0.8%포인트 높게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2012년 처음으로 2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성을 넘어선(여성 62.9%, 남성 62.6%) 이후 지난해에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 것이다. 특히 격차도 2012년 0.3%포인트에서 2013년 0.8%포인트로 소폭 늘어났다.

반면 30대에서는 여전히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았다. 지난해 30대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무려 93.2%로 여성(57%)보다 1.5배 이상 많았다.

특히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3년(53.9%) 이후 10년째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임민욱 사람인 팀장은 "20대에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던 여성들이 30대에 접어들면 출산·육아 등의 부담으로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며 "여성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mlee@

'보조금 숙제' 떠맡는 방통위 3기

2기 임기 25일 종료… 단통법 통과·이통사 추가 영업정지 '바통'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내정자를 포함한 방통위 3기 출범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임기가 25일까지인 이경재 방통위원장과 홍성규·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 김대희·양문석 위원으로 구성된 방통위 2기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재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을 끝으로 사실상 업무가 마무리된다.

이들의 바통을 최성준 내정자를 중심으로 허원제 전 국회의원, 김재홍 전 국회의원,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 등으로 구성된 방통위 3기가 이어받았다. 아직 청와대 추천 상임위원 한 자리는 비어있는 상황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방통위 3기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우선 최근 가장 논란이 일고 있는 통신 시장 안정화 문제가 핵심이다.

이 문제는 최 내정자 역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 내정자는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나 "이용자들이 휴대전화를 살 때 가격 차이 때문에 새벽에 달려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여러 정책을 동원해 불법 보조금 악순환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바로잡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국회 통과 무산 이후 통신 시장 대응에 효율적인 대처를 못 해 연임에 실패했다는 분석이 나온 만큼 방통위 3기엔 단말기 유통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및 통신 시장 안정화를 위한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방통위 2기에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각각 14일과 7일 추가 영업정지 시기에 대한 결정을 방통위 3기로 넘기면서 이에 대한 고민도 요구된다.

유료방송 업계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합산규제 법안의 해결도 방통위 3기의 골칫거리 사안이다. 당초 KT가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와 IPTV의 결합 상품인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를 내놓으며 논란이 된 이 사안은 KT의 서비스 가입자가 사실상 유료방송 점유율의 3분의 1을 차지하면서 법안의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 때문에 케이블 TV 업계를 비롯한 유료방송 업계에선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라는 취지에 입각하되 뭔가 새로운 제재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 최근 개인정보 보안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KT의 홈페이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한 처벌 문제,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 활성화를 위한 700MHz 주파수 할당을 놓고 미래창조과학부와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등도 방통위 3기에 놓인 중요한 과제다.

업계 관계자는 "(최 내정자가) 방송통신 분야 전문가가 아닌 만큼 다소 우려는 되지만 법조계 출신인 만큼 산적한 현안들을 공명정대하게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방통위 3기에선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법과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삼성 커브드 UHD TV' 중국 상륙 삼성전자가 17일 중국 상하이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서 '2014년형 커브드 초고화질(UHD) TV' 출시 행사를 열고 중국 TV 시장 선점에 나섰다. /삼성전자 제공

온라인 투표 'KT 보팅' 동대표·반장선거 척척

KT의 온라인 투표 서비스가 아파트단지와 일선 학교에서 큰 반응을 얻고 있다.

KT는 지난해 6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해 12월부터 'KT 보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T 보팅 서비스는 각종 선거에서 PC나 스마트폰 등을 사용해 투·개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KT 보팅 서비스는 새 학기 학생회장과 반장 선거에서 대거 도입되는 중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PC, 스마트폰, 일반 휴대전화 등으로 투표가 가능해 투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선거인은 문자메세지나 e메일로 받은 고유 인증번호를 갖고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 접속해 후보를 선택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 수수료도 투표 인원이 2000명 이하일 경우 선거인 1인당 700원으로 저렴하다.

KT 측은 "아파트 대표 선거나 각급 학교 회장 선거 등이 매년 진행되는 만큼 서비스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현재는 시장 초기로 앞으로 성장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윤희기자 unique@

티노스 차량용 AVN 작년 4500만달러 수출

이상락 대표 "10년내 글로벌 5대 기업 목표"

차량용 오디오비디오내비게이션(AVN) 전문업체인 티노스가 현대·기아자동차 해외 현지 생산 공장에 AVN을 수출하는 등 지난해에만 4500만 달러가 넘는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실적에 힘입어 티노스는 지난해 '제50회 무역의 날' 2000만 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하기도 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2010년 이전까지 멀티미디어 AVN의 하드웨어(HW) 및 소프트웨어(SW) 외주 용역 개발 회사였던 티노스는 우수한 개발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아 2011년부터 현대·기아차 순정 주문자상표부착(OEM) 제품 수준의 AVN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후 티노스는 현대 모비스 등을 통해 해외 자동차 조립 공장 라인에서 장착하는 PIO(Port Installed Option) 방식으로 2011년 첫 수출의 길을 열었다. 전 세계 자동차 AVN 시장 진입을 목표로 개발 초기 제품부터 HW 플랫폼 규격을 통일해 2011년 브라질, 2012년 러시아, 2013년 중국 시장에 진입했다. 올해는 브릭스 국가 중 마지막 남은 인도 시장 진입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티노스는 중동(GCC 6개국 외 이란 등) 지역과 호주 등 신규 시장 확장 진입에도 성공했으며, 개발 업체에서 시스템 업체로 전환한 지 2년여 만인 지난해 12월 제5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2000만 달러 수출의 탑 기업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상락 티노스 대표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자동차 AVN 업체로 거듭나기 위해 스마트카와 연동되는 제품의 개발 부문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며 "향후 10년 이내에 자동차 AVN 시장에서 글로벌 5대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티노스는 지난해 말 기준 4500만 달러가 넘는 수출 실적을 기록했으며, 올해 수출 규모는 1억1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영기자

쏘나타 LF 디젤 출시 연기 '왜'

가솔린 사전계약 호조에 저탄소차 협력금도 이유

오는 24일 데뷔하는 현대차 신형 쏘나타에 1년여 뒤 디젤 모델이 추가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신형 쏘나타에 2.0과 2.4 가솔린 모델만 우선 출시할 예정이다. 이는 YF 쏘나타 초창기 라인업과 같은 것이다. 현대차는 YF 쏘나타에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만 얹다가 뒤에 하이브리드와 터보 모델을 차례로 출시한 바 있다.

현대차가 쏘나타 디젤 출시를 늦추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우선 신형 쏘나타의 사전 계약 실적이 좋기 때문이다. 즉 기존 엔진만으로도 신차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데뷔 초기에 디젤 모델을 출시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내년 1월부터 저탄소차량 협력금 제도가 시행될 경우 쏘나타 가솔린 모델이 당장 피해를 입지 않는 점도 고려됐다. YF 쏘나타 2.0 CVVL 모델의 경우 km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42~147g이다.

환경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초안은 km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130g 이하 차량에 보조금(50만~300만원)을 지급하고, 배출량 131~145g은 중립(보조금 및 부담금 없음), 배출량 145g 초과는 부담금(50만~300만원)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에서는 조세연구원·산업연구원·환경연구원 등과 관련 연구를 진행해 4월 말 연구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확정 지을 방침이다.

현대차의 또 다른 중형차인 i40 디젤의 존재도 쏘나타 디젤 출시를 미루는 배경이다. 현대차는 유럽형 중형차인 i40에 1.7ℓ 디젤 엔진을 얹어 판매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판매가 신통치 않다. i40는 2013년에 5825대가 판매돼 쏘나타 판매량의 6.5%에 그쳤으며, 올해 2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404대로 전년 동기 대비 33.2%나 감소했다. i40는 쏘나타 하이브리드 판매량에도 밀려 존재감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판매가 부진한 디젤 모델에 공을 들이기보다는 당분간 가솔린 모델만 판매하겠다는 게 현대차의 입장이다.

현대차는 신형 쏘나타에 2.0 디젤 엔진을 얹어 테스트 중이고 이를 내년부터 시판할 계획이다. /임의택기자 ferrari5@

이통사 막간 'IPTV 전쟁'

3사 순차 영업정지 시작과 함께 '블루오션 선점' 마케팅 불붙어

이동통신 영업정지를 맞은 통신 3사가 인터넷 프로토콜(IP)TV에서 장외 전쟁을 펼치고 있다.

IPTV는 텔레비전 수상기에 인터넷을 연결해 드라마와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재시청하거나 정보 검색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번달 발표한 'IPTV 가입자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812만 가구가 IPTV를 이용하고 있다. 점유율은 KT 57.88%(470만 가구), SK브로드밴드 23.15%(188만 가구), LG유플러스 18.96%(154만 가구) 순이다.

이통 3사는 지난 13일부터 순차 영업정지가 시작되자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IPTV 시장에서 장외 전쟁을 벌이는 중이다. 대대적인 오프라인 이벤트를 진행하거나 3D TV를 경품으로 내걸기도 한다. 대리점 방문만 해도 사은품을 증정하는 업체도 있다.

KT는 인터넷과 IPTV 신규 가입 고객 대상으로 스마트 셋톱박스를 무료 지원하고, 42인치 3D TV를 반값에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KT의 영업정지가 다음달 26일까지란 점에 맞물려 이벤트는 다음달 30일까지 이어진다.

SK브로드밴드는 류현진 선수의 경기 생중계에 특화한 모바일 IPTV 'Btv모바일', 멀티미디어 서비스 'B박스' 등을 대대적으로 홍보 중이다. 영업정지가 시작된 첫 주말인 15~16일에는 서울 여의도 IFC몰에서 B박스 체험 존을 열기도 했다.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 기간에 꼭 맞춰 IPTV 이벤트를 진행한다. LG유플러스는 1차 영업정지 기간인 다음달 4일까지 U+ 스퀘어 매장을 방문해 상담만 받더라도 섬유유연제를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인터넷, IPTV 등 홈 서비스 상품에 가입하는 신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LG 스마트TV, LG 최신 스마트폰 G프로2 등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LG유플러스 마케팅 전략팀 김현성 팀장은 "이번 이벤트는 영업정지가 모바일 서비스에 국한된 것이지 인터넷 등 홈 서비스는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포함된 이동통신 분야는 보조금 출혈 경쟁과 과도한 마케팅 지출로 포화 상태"라면서 "영업정지로 휴대전화 가입 유치가 어렵게 되자 통신사들이 인터넷 결합 상품에서 활로를 찾는 중"이라고 전했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큰 오렌지 먹고 더 건강하세요 17일 서울 영등포구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모델들이 썬키스트 오렌지 대과 출하를 기념해 오렌지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80세도 가입되는 암보험

라이나생명은 고령자 대상 암보험인 무배당 실버암보험의 가입 연령을 80세로 확대했다고 17일 밝혔다.

라이나생명은 2012년 7월 국내 최초로 고령자 전용 암보험 무배당 실버암보험 상품(갱신형)을 출시한 바 있다.

무배당 실버암보험은 61세에서 80세까지의 고령자들이 가입 가능하도록 고안된 10년 만기 암보험 상품으로 10년 단위로 갱신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위암, 대장암, 간암 등 일반 암으로 진단 확정 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해 암치료보험금 최대 2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이 상품은 특약 가입을 통해 특정 암(위암, 대장암, 폐암) 또는 고액 암(백혈병, 뇌암, 골수암)에 대해서 추가 보장받을 수 있어

든든하게 대비할 수 있다. 또한 이번에 새롭게 출시하면서 암으로 인한 사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특약을 함께 개발했다. 무배당 실버암사망특약(갱신형) 가입을 통해 보험 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은 암보장개시일, 갑상선암은 갑상선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 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을 경우 최대 2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단 이 특약의 가입은 61세부터 75세까지 가능하다. 상품 문의 전화: 080)951-85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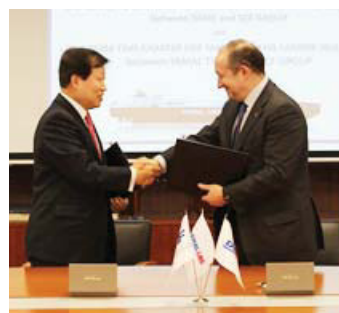
/박정원기자 pjw89@

대우조선 3억달러 쇄빙 LNG선 수주

대우조선해양은 17일 러시아 국영 선사인 '소브콤플롯'과 체결한 '야말(Yamal) 프로젝트' 쇄빙LNG선 시리즈 첫 호선에 대한 계약이 발효됐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의 총 금액은 약 3억 달러 규모로, 17만㎥급 쇄빙 LNG선은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 조선소에서 건조돼 오는 2016년 중순께 선주 측에 인도될 예정이다.

야말 프로젝트는 러시아 가스회사인 '노바텍'과 프랑스 '토탈' 그리고 중국 CNPC(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시베리아 서쪽 야말반도에 위치한 천연가스전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최대 두께가 약 2.1m에 달하는 북극해의 얼음을 스스로 깨고 나갈 수 있는 17만㎥급 '아크-7 아이스

대우조선해양 고재호(왼쪽) 사장과 소브콤플롯 세르게이 프랑크 회장이 건조계약서에 서명 후 악수를 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제공

클래스' 쇄빙LNG선의 건조를 위해 대우조선해양은 여러 차례에 걸친 모형 실험을 통해 최적화된 아이스 선형을 개발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계약을 포함해 15척, 총 17억4000만 달러 상당을 수주하며 순조로운 수주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김두탁기자 kimdt@

OCI 등 법인세 폭탄

국세청이 지난해 대기업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여 OCI·코오롱글로벌·효성 등이 법인세 폭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에도 포스코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가 진행돼 추가적인 추징금 부과가 예상된다.

15일 재벌닷컴이 지난해 상장사 매출 100대 기업의 회계연도 개별 기준 법인세 비용을 집계한 결과, 12조3483억원으로 전년 12조3487억원보다 0.04%인 4억원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에 반해 100대 기업의 지난해 세전 순이익은 50조6998억원을 기록해 전년 59조2046억원보다 14.4% 급락했다. 대기업의 실적 부진에도 법인세 규모가 전년 수준을 유지한 것은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에 따른 대규모 세금 추징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태균기자 ksgit@

메트로신문 창간 12주년 기념

소프라노 신영옥과 함께하는 5월 어버이를 위한 음악회

지휘 | 여자경
바이올린 | 임지희
하프 | 김아림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2014. 5. 8(목)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 | metro 메트로신문사
주관 |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입장권
R석 20만원 / S석 12만원 / A석 7만원 / B석 5만원 / C석 2만원
※초등학생 이상 입장 가능합니다.

공연예매
SAC Ticket
www.sacticket.co.kr 02-580-1300
인터파크
ticket.interpark.com 1544-1555

공연문의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사무국
031-392-6422
www.primephil.net

완판 임박… '삼송2차 아이파크' 계약 서두르세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및 전셋값 상승의 영향으로 수도권 대단지 아파트의 분양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주택 시장 회복과 함께 전셋값은 여전히 고공 행진을 벌이면서 수요자들이 이참에 내 집 마련에 나서는 분위기다.

실제로 서울 은평뉴타운의 경우 작년 초 2억5000만원이었던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전셋값이 현재 3억원 이상으로 급등했다. 이로 인해 은평뉴타운 기존 전세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분양가가 저렴한 인근 삼송지구에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다.

현재 삼송지구 A-20블록 삼송2차 아이파크는 이 같은 수요자들이 몰리며 물량이 상당 부분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면적 74㎡B 타입은 이미 분양이 마감됐고, 다른 타입 역시 완판을 앞두고 있다. A-8블록 삼송1차 아이파크 역시 3.3㎡당 980만~1050만원 선의 파격적인 분양가 등으로 계약이 크게 늘면서 분양 마감이 임박했다.

지형상 남쪽과 북쪽으로 구분되는 삼송지구 아이파크는 남삼송과 북삼송의 대표 단지로 꼽히며, 각각 차별화된 상품 구성을 갖추고 있다.

삼송1차 아이파크가 있는 북삼송은 조용하면서도 교육 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중대형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많다. 또 삼송2차 아이파크가 자리한 남삼송은 교통 환경과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이 중 삼송1차 아이파크는 전 세대가 전용면적 100㎡와 116㎡로 구성된다. 중대형이지만 저렴한 분양가로 최소 입주금은 1억4000만원부터 즉시 입주 가능하다. 계약금은 5%이고, 입주 기간은 6개월이다.

반면 삼송2차 아이파크는 모든 가구가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으로만 구성된다. 총 1066가구로 ▲74㎡ 288가구 ▲84㎡ 788가구로 이뤄졌다. 현재 삼송지구 분양 아파트 가운데 중소형 평형을 공급하는 유일한 단지다.

사업지	삼송 1차 아이파크	삼송 2차 아이파크
세대수	610가구	1066가구
주택형	전용 100㎡, 116㎡	전용 74㎡, 84㎡
입주시기	즉시 입주가능	2015년 9월예정
특 징	초등학교, 도서관, 통일로IC 인접	삼송역 역세권 대단지
문의번호	1577-1551	1566-3022

지하철 3호선 삼송역이 도보 거리에 있으며, 신분당선 연장 구간 삼송역 개발도 계획돼 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통일로, 원흥~강매 간 도로(8월 개통 예정) 등을 이용해 서울 도심권, 여의도 등으로 쉽게 이동 가능하다.

또 북한산 조망권을 확보했으며 단지 앞에 창릉천, 솔개천이 위치한다. 단지 내 자녀와 산책할 수 있는 600m 길이의 산책로가 조성되고, 단지 중앙에는 축구장의 약 3배 규모에 달하는 오픈스페이스가 제공된다.

삼송2차 아이파크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128-15번지(삼송2차 아이파크 현장)에 위치한다. 입주는 2015년 9월 예정이다. /박선옥기자

실내 공기 걱정도 끝 17일 서울 한강로 이마트 용산점에서 모델들이 공기 정화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마트는 다가오는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로부터 실내 공기를 책임질 실내 공기 안심상품 기획전을 열고 오는 26일까지 관련 상품을 최대 5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뉴시스

중형 못잖은 소형의 유혹

서비스 면적 분양 흥행 키워드… 건설사 '실속' 아파트 경쟁

아파트 서비스 면적이 성공 분양의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중소형 아파트값으로 중대형에 사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줌으로써 보다 깐깐해진 수요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어서다.

서비스 면적이란 발코니, 테라스, 다락방 등과 같이 세대 내 '덤'으로 들어서는 공간으로, 확장 시 방 또는 거실 등으로 활용 가능하면서도 분양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서비스 면적이 넓은 만큼 실사용 면적도 커지게 되고, 실질 분양가는 낮아진다.

예컨대 전용면적 84㎡ 아파트에 서비스 면적 33㎡가 추가될 경우 실제로는 117㎡ 아파트를 84㎡ 가격으로 사게 되는 셈이다. 서울 3.3㎡당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1567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억5000만여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비스 면적을 최대화하기 위한 건설사별 평면 경쟁이 치열하다. 발코니 확장에 유리하도록 베이를 늘리는 것은

45㎡(약 13평) 발코니가 제공되는 84㎡B 타입 이미지.

기본이고, 다락방이나 테라스 등 차별화된 공간을 제공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무턱대고 발코니만 틀 경우 수납공간이 부족하다는 소비자들의 지적에 따라 실사용 면적의 확대뿐 아니라 수납공간의 강화까지 동시에 실현하는 평면으로 설계 기술을 한 차원 더 진화해나가고 있다.

한신공영이 오는 21일 경남 창원 장천동에서 모델하우스를 오픈하는 '창원 한신휴플러스 오션파크'는 전용면적 69~84㎡의 중소형 주택형으로 구성됐음에도 1층에는 테라스와 복층이, 최상층에는 테라스와 알파 공간이 주어진다. 또 69㎡B 타입으로 약 25㎡, 84㎡A 타입으로는 27㎡가량의 서비스 면적이 제공된다.

유승종합건설이 이달 인천 남동구 구월보금자리지구에서 선보일 '구월보금자리지구 한내들 퍼스티지'는 전 세대에 남향 위주의 4~5베이 설계를 적용하고, 33㎡ 이상의 발코니 면적을 제공한다. 특히 전용 면적 84㎡B 타입과 94㎡의 경우 45㎡ 이상 발코니가 제공돼 눈길을 끈다.

대우건설은 다음달 충북 충주시 안림동에 분양하는 '충주 2차 푸르지오'에 3~4베이 평면을 적용, 확장 시 보다 넓은 공간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84㎡C 타입의 경우 확장 면적이 31㎡에 달하고, 74㎡B 타입도 28㎡의 공간이 덤으로 주어진다.

이외 서한이 경북 칠곡군 금호지구 첫 민영아파트로 분양 중인 '서한이다음'은 전용면적 74~132㎡를 최대 5베이까지 설계해 37.86~52.58㎡의 면적을 서비스로 준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오피스텔 투자처 도심·강서 뜬다

지난달 '2·26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오피스텔 투자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선 모습이다. 하지만 강남에 비해 공급이 적었고,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심권과 강서권은 여전히 안정적인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17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 평균 임대 수익률은 5.34%다. 이에 반해 구로구(6.33%)와 강서구(6.29%), 광진구(5.93%), 동대문구(5.44%) 등 도심·강서권의 주요 지역 임대 수익률은 최고 6%를 넘고 있다.

이들 지역은 광화문, 종로, 여의도, 강남 등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임대 수요가 꾸준한 편이라, 건설사들도 투자자를 선점하기 위한 분양 준비에 한창이다. 당장 4월에만 3개 단지가 공급된다.

먼저 도심권에서는 대우건설이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서 '동대문 푸르지오 시티'를 분양한다. 지하 5층~지상 24층, 2개 동, 전용면적 19~36㎡ 총 824실 규모다. 이 중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23㎡ 525실,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용면적 19~37㎡ 299가구다. 1호선 제기동역이 걸어서 1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다.

SK건설은 광진구 구의동에 들어서는 주상복합단지 '강변SK뷰' 오피스텔 133실을 공급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26~29㎡로 이뤄졌다. 2호선 구의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한강이 인접해 있다. 인근에 올림픽대교와 잠실대교가 있어 강남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강서권에서는 마곡지구 물량이 눈에 띈다. 대우건설은 강서구 마곡지구 B5-2블록에서 '마곡역 센트럴 푸르지오 시티'를 선보인다. 지하 5층~지상 14층 전용면적 23~38㎡ 510실 규모로 5호선 마곡역과 인접한 초역세권 단지다. /박선옥기자

리츠회사 민영주택 우선공급 0건… 제도 '유명무실'

부동산투자신탁회사(REITs·리츠회사)에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한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시가 장환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리츠회사 민영주택 우선 공급 관련 조례가 제정됐지만 실적은 전무하다.

앞서 2011년 9월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세부 내용은 조례로 정하게 했다. 이후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1년간 해당 지역 민영주택 평균 청약률이 1대 1 미만일 때 리츠회사에 우선 분양할 수 있게 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조례 개정 후 7개 구 13개 사업장에서 민영주택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이 있었고, '관악파크 푸르지오'와 '강동 래미안 팰리스' 2곳의 청약률이 1대 1 미만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들 단지 모두 구청과 조합이 조례를 제대로 숙지조차 못해 리츠회사에 우선 공급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박선옥기자

그야말로 'e스포츠의 봄'

다음달부터 5월까지 글로벌대회 줄이어

올봄에는 여느 때보다 e스포츠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른다. 전 세계적인 인기를 자랑하는 메이저 게임 업체들이 개최하는 글로벌 대회가 다수 개최되기 때문이다.

최근 전해진 '월드사이버게임스(WCG)'의 폐지 소식에 실망하고 있을 e스포츠 팬이라면 눈여겨 볼 만하다.

◆4월 4일 'WGL 그랜드 파이널'

2014년 글로벌 e스포츠 리그 릴레이의 막을 여는 것은 '월드 오브 탱크'다. MMO 전략게임 전문 개발 및 퍼블리셔인 워게이밍은 오는 4월 4일부터 6일까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워게이밍넷 리그 그랜드 파이널(WGL 그랜드 파이널)'을 개최한다.

한국 대표로는 국내 최고의 기량을 증명한 아레테(ARETE)와 노아(NOA)가 출전한다.

또 워게이밍은 창사 이래 최초로 개최하는 글로벌 e스포츠 대회인 만큼 이번 'WGL 그랜드 파이널'을 성대한 e스포츠 축제로 준비하고 있다. 바르샤바 중심에 위치한 멀티플렉스 영화관 '멀티키노 골든 테라스'에서 모든 경기를 진행하며, 바르샤바시 당국의 공식 협조를 얻어 '월드 오브 탱크'와 대회 관련 구조물로 도시 곳곳을 장식할 예정이다.

◆4월 17일 '도타 2 스타래더 시즌9'

'스타래더'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도타 2 대회인 '인터내셔널'에 버금가는 대회다. 글로벌 결승전은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우크라이나 키예프에 위치한 사이버스포츠 아레나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결승전에는 처음 한국 대표팀이 참가하며 유럽, 러시아, 북미와 남미, 중국 등 전 세계 지역 예선을 통과한 8팀이 대결한다.

결승전에 출전할 한국 대표팀을 선발하기 위해 29일까지 예선을 진행한다. '버드갱' '엠브이피 피닉스' '오인큐' 등 총 8팀이 참여해 글로벌 결승 진출권을 놓고 경합을 벌이고 있다.

◆5월 8일 'LoL 올스타전 2014'

이날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 2014 올스타전'이 개최된다. 각 지역별로 예선을 거쳐 진행하는 세계 대회 결승전 '롤드컵'만큼은 아니지만 각국을 대표하는 강팀들이 모이는 만큼 팬들의 관심이 뜨겁다.

올스타전은 각 지역별로 가장 최근에 리그 우승을 차지한 팀을 초청해 서로 대전하는 '올스타 인비테이셔널'과 팬들의 투표로 선발된 지역별 대표 선수 10명이 양팀으로 나뉘어 대결하는 '올스타 챌린지'로 구성된다.

가장 최근 벌어진 한국 지역 리그인 'LoL 챔피언스 윈터'의 우승팀, SK텔레콤 T1 K팀이 한국 대표로 출전한다. '올스타 챌린지'에 출전할 한국 대표 선수 2명은 별도 투표를 통해 선발될 예정이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LG·삼성 스마트TV 사용 기록 줄줄 샜다

독일 컴퓨터 전문잡지 "해킹한 정보 확보했다"

스마트 TV에 대한 해킹 경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보안 강화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커가 마음만 먹으면 검색 기록을 빼내는 것은 물론 내장 카메라를 통해 안방을 엿보는 것도 가능하다는 경고다.

독일 컴퓨터 전문 잡지 c't는 스마트 TV를 해킹해 사용자 관련 정보를 확보했다고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잡지에 따르면 LG전자 스마트 TV에서 'LOVEFiLM' 애플리케이션 검색 기록과 아마존 로그인 정보 등을 빼냈고 삼성전자와 필립스 스마트 TV에서는 어느 웹사이트를 방문했는지 해독해냈다.

c't는 스마트 TV가 인터넷에 연결되면 어떤 채널을 보는지, 어떤 앱을 자주 사용하는지 등 방대한 정보를 방송사와 TV 제조업체 등에 유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마트 TV가 해킹에 취약하다는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국 온라인 보안업체 iSEC 파트너스는 2013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한 사이버보안 콘퍼런스에서 스마트 TV를 해킹하면 몰래 촬영은 물론 은행계좌 정보도 빼낼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윤광택 시만텍 코리아 이사는 "스마트 TV는 보안이 취약하고 PC처럼 감염이 돼도 소비자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꼭 필요한 기기만 인터넷에 연결하고 무선 공유기 비밀번호 관리를 철저히 해야 보안 위협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국명기자 kmlee@

'이승철 이어폰' 기술 담은 스피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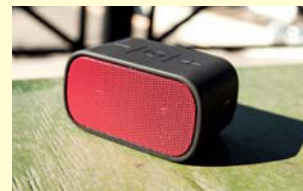
꼼꼼 IT 리뷰 - UE 미니 붐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이들 기기의 오디오 성능을 극대화하는 보조 스피커들이 인기다.

휴대성이 뛰어난 이들 기기는 성능에 따라 가격이 3만~4만원대에서부터 100만원이 넘기도 한다. 스마트 기기를 돋보이게 하는 일종의 액세서리인 만큼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면 본래 쓰임새에서 벗어나는 셈이다.

그렇다고 저가 제품을 사자니 스마트 기기 자체 스피커로 듣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 '있으나 마나 한' 물건으로 전락한다.

로지텍의 고품격 오디오 제품을 생산하는 얼티밋 이어(UE)는 그런 점에서 검증이 됐다고 볼 수 있다. 원래 미국 유명 가수들이 즐겨 찾는 브랜드였으나 이 분야에서 더 큰 가치를 개척하려는 로지텍이 인수했다.

이승철·인순이 등 국내 대표 라이브 가수들의 커스텀 이어폰을 생산하는 브랜드로도 유명해지고 있다. 'UE 미니 붐'은 작지만 UE의 DNA를 담고 있는 만큼 뚜렷한 고음, 깊이 있는 저음을 제대로 살리고 있다.

특히 작은 체구에서도 뛰어난 스테레오 사운드를 뽑아낸다. 'UE 미니 붐' 앱을 무료 다운로드해 두 대의 스피커를 무선으로 연결하면 스테레오 효과가 더욱 커진다.

블루투스 무선 연결 가능 거리는 최대 15m이며 마이크로 USB로 쉽게 충전할 수 있다.

레드, 블랙 두 가지 색상의 강렬한 외관도 매력적이며 메탈 프레임과 고무 재질 케이싱으로 제작돼 내구성도 좋은 편이다. 여기에 스피커폰은 물론 전화를 받고 끊을 수 있는 다기능 버튼도 갖췄다.

물론 크기와 출력은 어느 정도 비례하는 만큼 50만원대 이상의 성능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가격은 온라인 몰에서 최저 12만원대에 팔리고 있다.

/박성훈기자

쿠팡 공채…당신의 꿈 팡팡 터뜨리세요

소셜커머스 쿠팡은 2014년 상반기 공개 채용을 실시한다.

총 300명의 대졸 신입 및 경력사원을 선발하는 가운데 '소프트웨어 개발 경력' 부문은 '웹·모바일 서비스 개발'과 '데이터 랩' 부문으로 30일까지 원서 접수를 진행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신입' 부문은 전 분야에 걸쳐 모집하며 원서 접수 기간은 24일부터 4월 13일까지다.

쿠팡은 소프트웨어 경력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자사의 미국 오피스를 활용해 현지 개발자들과의 직접 교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소프트웨어 신입 개발자들이 개발 관련 업무를 원활히 습득하고 숙련된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배 개발자들의 맞춤 멘토링 및 체계적인 사내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객 서비스 지원' 부문의 대졸 신입사원 모집은 23일까지 실시한다.

입사 지원 자격 요건은 신입사원의 경우 4년제 정규대학 2013년 기졸업자와 2014년 8월 졸업예정자 및 기졸업자이며 경력사원은 유관 업무 수행 경험자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박성훈기자

NHN엔터 31일까지 신입사원 지원 접수

NHN엔터테인먼트는 31일까지 분할 후 처음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한다.

모집 부문은 SW 개발, IT 인프라, IT 보안 등이며 공채로 총 OO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2014년 8월 또는 2015년 2월 졸업 예정자 및 기졸업자이며, NHN엔터테인먼트 채용 홈페이지(http://recruit.nhnent.com)에 접속해 온라인 지원서를 작성하면 접수된다.

▲SW 개발 부문은 게임 플랫폼, 서비스 플랫폼, 웹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개발 업무 ▲IT 인프라 부문은 IT 기획, IDC 엔지니어링, 시스템 엔지니어링, 데이터 엔지니어링 업무 ▲IT 보안 부문은 인프라 보안과 응용 보안 업무를 담당할 인재를 선발한다.

NHN엔터는 이번 신입사원을 첫 번째 '토스트 루키(Toast Rookie)'로 명명하고 앞으로 기업 문화를 담은 차별화된 채용을 통해 톡톡 튀고 역량 있는 2기, 3기 '토스트 루키' 들을 계속 선발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회사 측은 이를 위해 회사 생활을 먼저 경험해 보는 'Feel the TOAST' 전형을 새롭게 신설했다.

/박성훈기자

아들처럼…편의점 맛들인 아버지들

50대 이상 연령층 매출 점유율 20% 첫 돌파
삼각김밥·수입맥주 등 쇼핑목록 20대와 겹쳐

편의점 업계에 중장년층들의 구매 바람이 심상치 않다. 그동안 청년층의 전유물로만 느껴지던 편의점 시장에 50대 이상의 소비자들이 올해 최초로 20%를 넘어서면서 새로운 타깃층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편의점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1990년대 당시 20~30대 청년층(1960년대 초반생)이 중장년층으로 나이가 들면서 이들의 편의점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17일 편의점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이달 14일까지의 50대 이상 고객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1%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매출 구성비가 20.7%를 기록하며 20%대를 돌파하는 등 전 상품군에 걸쳐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20~30대 젊은 고객들이 많이 찾는 품목들에서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실제로 이 기간 삼각김밥 매출은 전년 대비 5.8% 증가했는데 50대 이상 고객 매출은 18.7% 증가하며 전체 평균을 상회했다. 20대와 30~40대 매출은 각각 3.8%, 4.3% 증가에 그쳤다.

외산 맥주는 올해 20.8%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50대 이상 고객 매출은 무려 46.9%나 증가했다. 외산 맥주 내 50대 이상 고객의 매출 구성비도 지난 2012년 13.7%, 2013년 16.6%에 이어 올해는 18.9%로 연평균 2%포인트 이상 증가하고 있다. 컵커피·탄산음료 등에서도 50대 이상 고객의 소비는 각각 35.7%, 40.9% 증가하며 해당 상품들의 성장을 주도했다.

/세븐일레븐 제공

도시락은 전년 동기 대비 21.9%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50대 이상에서만 47.7% 성장하며 전체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식사 대용품인 즉석밥과 레토르트 상품도 20대와 30~40대의 성장률은 각각 7.9%, 8.3%였지만 50대 이상은 3배 이상 높은 27.1%를 기록했다. 매출 구성비도 2014년 현재 18.8%로 지난해보다 2.5%포인트 증가했다.

이 편의점에서 헤어용품 매출은 20~30대의 소비가 다소 둔화되면서 4.2% 증가에 그쳤지만 50대 이상은 24.8%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스마트폰·인터넷 등으로 대변되는 소위 청년 문화에 대한 중장년층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정보와 문화에 익숙해짐에 따라 이들의 소비 패턴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식품업계 장학사업 '훈훈'

대상·오뚜기·동원·매일유업 사회환원 꾸준

식품업계가 각종 장학사업을 통해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대상그룹은 그룹 산하의 공익 법인 대상문화재단을 통해 지난 44년간이나 활발한 장학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지원 금액도 현재까지 총 145억원에 이른다. 이는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던 인문학 분야와 기초과학 분야, 식품 관련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선발·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해온 사업이다. 최근에도 총 19억2000만원의 장학금을 국내 대학생 27명과 동남아 유학생 10명, 청소년 가장 및 기초생활수급권자 자녀 440명 등 총 477명에게 전달했다. 수혜 학생만 44년간 1만4335명에 이른다.

오뚜기재단의 지원 활동도 눈에 띈다. 1996년 설립한 오뚜기재단은 식품 관련 다양한 학술진흥사업과 장학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1997년 5개 대학 14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550여 명에게 25억원이 넘는 장학금이 전달됐다.

동원그룹은 1979년 동원육영재단을 설립하고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에게 꾸준히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특히 2012년부터 미래를 이끌 대학생들에게 넓은 안목을 심어주기 위한 해외탐험 프로그램 '동원 글로벌 익스플로러'를 지원하고 있다.

매년 15개 팀, 50여 명의 글로벌 익스플로러 대원을 선발해 제출한 탐험 계획서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우수팀으로 선정될 경우 추가 장학금을 전달한다. 올해에도 이를 위해 지난 7일과 14일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산과 서울에서 공개 설명회를 가졌다.

매일유업 산하 재단법인 진암장학재단은 고창 군민 자녀 중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이 되는 대학생을 선정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해마다 대학생 5명을 선정해 1인당 200만원씩 총 1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까지 50명에게 총 1억원을 지원했다.

신세계푸드도 요리사나 파티시에를 꿈꾸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수강료·교재 구입비 등을 전액 지원하는 '희망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우수 학생은 대학 장학금 지원 및 정규직 입사의 기회까지 주고 있다. /정영일기자

'온라인 장보기' 목요일 거래량 최다

옥션 식품·생필품 전문몰 '마트온' 매출 데이터 분석

온라인 쇼핑몰에서 식품 및 생필품 등 마트 제품의 이용자가 가장 많은 날은 목요일이고 가장 저조한 날은 토요일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옥션에 따르면 이 회사가 식품·생필품 전문몰인 마트온 2주년을 맞아 판매데이터(1월 1일~3월 13일)를 분석한 결과 목요일이 전체 거래량의 18.1%를 차지해 '온라인 마트 쇼핑의 황금데이'로 집계됐다.

이어 수요일(17.6%)과 월요일(17.5%), 화요일(15.4%) 순이었다. 반면 주말은 주 초에 비해 온라인 쇼핑몰 이용자가 훨씬 적어 토요일(8.3%)은 거래가 가장 저조한 '쇼핑의 블랙데이'로 꼽혔고, 일요일도 11.0%에 불과했다.

이는 토·일요일 매출이 전체의 40%를 상회하는 백화점·할인점 등 오프라인 매장과는 대조적이며 일반적인 온라인 제품의 대목이 수요일인 것과도 상이한 결과다.

이런 현상에 대해 옥션 측은 "맞벌이 가구와 주말 레저족의 증가로 식품과 생필품 중심인 마트 제품을 주말을 앞두고 구매하는 이용자들의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마트온의 경우 제품을 6시 이전 주문 시 하루 만에 받아볼 수 있는 배송의 편리함 때문에 다른 온라인 품목보다 대목 요일이 하루 늦춰진 것으로 풀이된다.

옥션 마트온담당 김미경 과장은 "최근 주말을 이용해 캠핑, 레저 등 여가 생활에 많은 시간을 쓰게 되면서 온라인을 통해 미리 주말 장보기를 하는 경향이 크다"며 "이 때문에 고객들이 주말 전에 주문한 상품을 받을 수 있도록 마트 품목 판매자들 90% 이상이 당일 발송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빠르고 정확한 배송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학철기자

아름다운 신부 곁에
아름다운 시작, 코렐

코렐 '봄 웨딩' 프로모션

주방용품 제조회사 월드키친은 디너웨어 브랜드 코렐에서 웨딩 시즌을 맞아 4월과 5월 두 달 간 예비 부부를 위한 웨딩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월드키친 제공

당뇨환자 320만…당조고추 드세요

농진청-강원대 육성 품종 혈당 낮추는 효능 입증돼

최근 대한당뇨병학회는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가 30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 3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또 2050년에는 6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당뇨병은 혈당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상승했을 때 진단되는데 공복 시 혈당이 100㎎/dL이 넘거나 식후 2시간 혈당이 140㎎/dL 이상이면 당뇨병 전 단계로 진단한다. 이 상태에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10년 후엔 절반 정도가 당뇨병 환자가 된다.

당뇨에 좋은 음식으로는 부추·양파·마늘·땅콩·호두 등이 있다. 최근에는 풋고추를 개량한 당조고추가 혈당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당조고추는 2008년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와 강원대·제일종묘농산이 공동으로 육성한 품종으로 탄수화물 소화 억제 성분인 알파글루코시다제 억제제(AGI)가 풍부하게 함유돼 있다.

현재 농림부로부터 전북 완주군의 특화 사업으로 지정돼 있으며, 농촌진흥청과 강원대학교 연구 결과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임상실험에서 입증되기도 했다. /정혜인기자

제주신라호텔 '24일간의 선물'

개관 24주년 사은 패키지 1박+수영장·스파존 무료 매달 1명에 숙박권 증정

제주신라호텔은 개관 24주년을 기념해 고객 감사 기념 패키지(24th Anniversary Package)를 출시했다.

24주년 기념 패키지에는 스탠다드 객실 1박과 문라이트 스위밍 및 야외 스파를 즐길 수 있는 수영장&야외 스파 존 무료 입장권이 포함돼 있다.

또 유명 아티스트들의 라이브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월드 뮤직 페스티벌 무료 관람, 중문 해변 앞의 투숙객 전용 프라이빗 비치 하우스 무료 입장도 제공된다.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해 영유아 및 어린이들이 놀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짐보리&키즈 아일랜드 무료 입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 이용 혜택이 준비돼 있다.

'24'에 의미를 둔 이번 패키지는 지난 1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4일 동안만 예약할 수 있고 투숙 가능한 날짜 또한 총 24일로 3월에는 19·20·26·27·30·31일(6일), 4월에는 1~3일, 8~10일, 29~30일(8일), 5월에는 7~8일, 19~22일(6일), 6월에는 2~3일, 16~17일(4일) 중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면 된다. 객실 가격도 1박에 24만원(세금·봉사료 포함)이다.

한편 패키지를 예약하는 고객 중 매월 1명을 추첨해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1년간 원하는 기간(성수기 제외)에 1박 투숙이 가능한 제주신라호텔 숙박권을 증정한다. 문의 및 예약: 1588-1142·www.shilla.net/jeju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스파클링 와인 '미니엠' 달콤 주류 전문기업 아영FBC는 17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스위트 스파클링 와인 '미니엠(mini M)' 출시를 기념해 사진행사를 벌였다. 미니엠은 5%의 낮은 알코올 도수와 살아 움직이는 듯한 탄산과 버블감이 돋보이며 사과와 키위 와인 베이스의 달콤한 맛이 특징이다. /연합뉴스

영국항공 "서울~런던 매일 날아요"

31일부터…한국인 승무원 편당 4명으로 늘려

영국항공이 한국에서의 시장 확대를 위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에드워드 포더링험(사진) 영국항공 한국지사장은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영국항공은 지난 2012년 12월 한국에서의 운항을 개시했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3년 내에 한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보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영국항공은 우선 오는 31일부터 서울~런던 노선을 매일 운항하는 주 7회 데일리 서비스를 시작한다. 또 영국항공은 한국 탑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한국인 승무원을 비행기 편당 2명에서 4명으로 늘렸으며 지속적인 신규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국항공은 아시아 노선을 증편하는 동시에 한국에서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에드워드 포더링험 지사장은 "영국항공은 전통적으로 서비스 부문에서 강점이 있다. 이런 장점과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부분에 맞춰 다양한 사업을 구상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가 시작된 한국어 예약 시스템과 함께 4월 초 영국항공 페이스북을 오픈해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할 예정이며 기내 안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등 모바일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항공기 안전성 문제와 관련된 언급도 빠뜨리지 않았다.

그는 "영국항공은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사고가 가장 적은 항공사 중 하나이며 지금도 승객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직원 교육을 진행하고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국항공은 이번 데일리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다음달 15일까지 영국과 유럽의 61개 목적지로 향하는 '유럽행 전 좌석 특가 행사'를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영국항공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황재용기자 hsoul38@

복고의 봄, 데님 바람

G마켓·옥션 등 온라인몰 관련 패션상품 매출 급증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더니 완연한 봄이 찾아온 듯하다. 봄 패션의 대표 주자인 '데님'의 계절이 찾아오면서 온라인 몰에서 관련 상품의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 사이트 G마켓이 2월 14일부터 3월 13일까지 데님 상품 판매량을 집계한 결과, 여성 청재킷·데님 점퍼 판매량이 전월 대비 8배 이상(709%) 급증했다. 청·데님 원피스는 212%, 스커트는 158%, 청·데님 셔츠는 134% 늘었다. 사계절 내내 사랑받는 아이템인 청바지·스키니진은 전체적으로 63% 증가했다. 7~9부 청바지 판매는 전달 대비 19% 늘어나 따뜻해진 봄 날씨의 영향으로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복고 열풍이 데님 스타일에도 영향을 줘 G마켓에서는 같은 기간 여성용 배기청바지와 멜빵 청바지의 전월 대비 판매량이 각각 98%, 64% 늘어났다. 부츠컷·나팔바지는 52% 늘었다.

이 마켓의 남성 의류 카테고리에서 데님 상품 역시 판매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남성 청·데님 재킷은 전월 대비 판매량이 99%, 청·데님 셔츠는 69%씩 증가했다.

옥션에서도 같은 기간 여성 청·데님 스커트의 판매가 전월 대비 235%로 대폭 늘었다. 여성 데님셔츠와 돌청·아이스진도 같은 기간 각각 185%와 135% 증가했다. 남성 데님 반바지 판매는 같은 기간 40% 증가했고, 남성 데님 셔츠는 125% 늘었다. 남성 청바지 판매는 40% 늘었고, 그중 블랙·그레이진이 80% 매출이 오르는 등 가장 인기 있었다.

롯데닷컴에서도 최근 봄을 맞이해 데님 상품이 인기를 얻어 전월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외식업계 경품행사 '꽝' 없네

'100% 당첨' 통큰 손짓

새 출발을 시작하는 봄을 맞아 외식업계의 통 큰 이벤트가 한창이다. 간단한 퀴즈를 풀고 댓글을 달면 100% 지급되는 1000원 모바일 할인권부터 꽝 없는 즉석 스크래치 쿠폰까지 준비된 다양한 외식업계의 이벤트가 눈길을 끈다.

본죽은 새 TV 광고 캠페인을 선보이며 '본죽에 가자' 이벤트를 진행한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본죽 TV 광고 퀴즈를 풀고 이번 광고에 대한 30자 이상의 감상평을 남기면 참여자 전원에게 전국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1000원 할인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는 프로야구 시즌을 맞아 3월 한 달간 '모여라 야구 팬, 즐겨라 아웃백 랄랄라' 이벤트를 벌인다. 아웃백 매장 방문 시 테이블에 놓여있는 응모권에 좋아하는 프로야구 구단을 선택해 응모하면 된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현지 야구 관람권과 여행권을 비롯해 풍성한 경품을 제공한다. 또 참여만 하면 치킨 윙과 카스 생맥주 2잔을 2014원에 즐길 수 있는 아웃백 치맥 쿠폰을 100% 받을 수 있다.

면 전문점 제일제면소는 강원도 춘천을 대표하는 '제일 막국수' '봄나물 녹두 튀김' '참나물 도토리묵 샐러드' 신메뉴 출시를 기념해 100% 당첨 스크래치 이벤트를 벌인다. 춘천 펜션과 남이섬 입장권, 제일제면소 식사권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KFC는 '베이컨갈릭징거버거' 출시를 기념해 다음달 20일까지 '징거 3총사 먹고 괌 여행 가자'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신제품 2개를 포함한 징거버거류 스티커 5개를 모으면 100% 당첨 스크래치 쿠폰을 증정하며 즉석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등(2명)에게는 진에어 국제선 인천~괌 왕복 항공권을 증정하며 김포~제주 왕복권을 비롯해 신제품 무료 쿠폰 등을 증정한다.

/정영일기자

봄맞이 거실 청소 요령

세탁 어려운 커튼엔 방향소취제 사용을

겨울이 끝나고 봄 내음이 물씬 풍기는 3월, 겨우내 쌓인 먼지와 때를 벗겨내야 할 때다. 봄을 맞아 집 안 분위기를 바꾸고 싶다면 집 안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거실부터 변화를 주자.

거실 청소의 기본은 쓸기·닦기다. 진공청소기로 눈에 보이는 먼지를 제거하는데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진공청소기보다는 물걸레질을 하는 것이 좋다. 이때 물과 식초를 3대1로 희석해 분무기로 뿌린 후 닦아내면 살균 효과를 볼 수 있다.

얼룩이 생긴 바닥은 마른 걸레에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묻혀 닦는다. 먼지 제거와 찌든 때 제거가 쉽지 않은 카펫은 미세먼지와 수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굵은 소금으로 문질러준 후 청소기로 빨아들이거나 카펫을 털어내 간편하게 세탁하면 된다.

묵은 때까지 모두 벗겨낸 거실 분위기를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두껍고 어두운 색상의 겨울 커튼을 화사한 색상의 봄 커튼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교체한 커튼은 보관 전에 진공청소기로 각종 오염물질 및 먼지를 제거해준다. 미세먼지가 걱정된다면 분무기로 커튼에 물을 뿌린 후 스타킹을 씌운 페트병으로 쓸어내리면 먼지 제거 효과가 뛰어나다. 세탁이 어려운 커튼의 경우 방향소취제를 사용한다. 또 화사함을 살리는 노란 프리지아 한 다발이나 수선화·히아신스 화분을 놓아두면 다른 소품을 따로 배치하지 않아도 봄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다.

한편 애경에스티는 세탁이 어려운 커튼의 묵은 냄새를 줄이기 위해 뿌리는 방향소취제 '홈즈 에어후레쉬 에어로졸'과 얼룩·묵은 때 등 오염물질을 강력하게 제거해주는 살균세정제 '홈즈 퀵크린 다목적용' 등을 선보이고 있다. /정혜인기자

왼쪽부터 올봄 잇컬러 4가지를 담은 마르테·브리소네·김보연·오트의 작품.

작품 하나 걸었더니 집이 화사

올봄 잇컬러 담은 그림으로 새단장하세요

겨우내 칙칙하고 음침했던 집도 새봄맞이 단장을 할 때가 왔다. 최근 그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들이 늘고 있어 계절 따라, 기분 따라 다양한 컬러로 그림을 바꿔 집 안 분위기에 변화를 줄 수 있다. 비핸즈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그림 쇼핑몰 '그림닷컴'은 올봄 잇(it) 컬러로 'LOVinG(Light green·Orange·Violet·Green&Gold) 컬러'를 꼽았다.

연두색 그림을 선택하면 싱그럽고 상쾌한 봄 기운을 물씬 나게 한다. 마르테의 '코크리큐어츠 베르(Coqueliquots verts)' 시리즈는 살며시 봉오리를 열고 있는 개양귀비꽃 그림으로 14×14㎝의 작은 사이즈부터 60×80㎝에 이르는 큰 사이즈까지 있어 원하는 공간에 맞는 크기의 작품을 선택할 수 있다. 소파 뒤 벽면에 큰 사이즈의 그림 한 점이나 중간 사이즈 그림 두 점을 세트로 걸면 거실을 더욱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다프니 브리소네의 '스파이스 부케(Spice Bouquet)' 시리즈는 오렌지색 꽃들과 나비가 생기 넘치는 분위기를 준다. 브리소네는 식물학을 공부하며 알게 된 꽃과 나무의 색과 크기·미묘한 색채를 그림 안에 잘 녹여내고 있다. 통로나 복도 등의 세로형 자투리 공간에 아래로 길게 작품을 걸면 공간을 갤러리처럼 꾸밀 수도 있다.

◆부드러운 바이올렛과 우아하게 반짝이는 그린&골드

보라색 그림은 부드럽고 우아한 느낌으로 거실을 바꿔준다. 김보연 작가의 '모란'은 기존 민화에 '예측불가능성'의 디지털 프로그래밍을 입힌 작품이다. 모란도는 우리 선조들이 복을 가져다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걸었던 그림으로 집 인테리어에 제격이다. '모란' 시리즈는 비핸즈의 에디션 프린트 '아트앤'에서 원작자의 사인과 넘버링이 담겨있는 한정판으로도 만나볼 수 있다.

녹색과 금색의 만남은 반짝이는 봄 햇살과 신록의 싱그러움을 느낄 수 있다. 따뜻하고 생기 있는 색과 힘 있는 붓 터치로 완성된 베르나르 오트의 '콤퍼지션 엑시뒤레(Composition acidulee)'를 주방에 걸면 식욕을 돋워주면서도 주방을 더욱 생기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준다. 식탁 옆 벽면에 그림을 걸면 레스토랑 같은 분위기도 연출 가능하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metroseoul.co.kr

캠퍼스 텐 전시회 1만명 발길

63빌딩 계단 축제 성료

국내 최장 전시회로 화제가 됐던 '제1회 캠퍼스 텐 아트 페스티벌 @한화 63 전'이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 동안 63빌딩 1~60층과 17층 오피스 갤러리에서 열린 가운데 1만 명의 관람객이 찾는 등 대성황을 이룬 것으로 집계됐다.

메트로신문사가 공식 후원하고 캠퍼스텐과 한화호텔앤리조트, 63스카이 미술관, 가나아트의 주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대학생과 일반 관람객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었던 축제로 ▲전시 무료 입장 ▲유명 작가 전시회 ▲브랜드 존 체험 ▲음료 제공 등 볼거리가 풍성했던 전시회로 평가받았다.

행사 전부터 '캠퍼스 텐' 페이스북을 통해 5만 명 이상의 대학생들이 아트 페스티벌의 참가 의사를 밝히며 폭발적인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 결과 1만명 이상의 대학생들이 참여해 전시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고 캠퍼스 텐 측은 전했다.

개막 첫날인 14일은 화이트데이로 많은 커플들이 데이트 장소로 선택했다. 또 수업을 마치고 전시장을 찾은 대학생 커플들은 "무료로 행사를 즐기고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이 새로운 경험이었고 추억에 남을 만한 화이트데이였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작품을 태깅하면 도슨트 없이 작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츄파(CHUPAR)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작품 해설이 처음으로 도입돼 관심을 끌기도 했다.

/정영일기자 prms@

강강술래 "꽃씨 나눠 드려요"

28일까지 신림점 방문시 전국 매장선 간편식 할인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희망 꽃씨 나눔 이벤트 및 다양한 할인행사를 벌인다.

오는 28일까지 강강술래 신림점을 방문한 고객 전원에게 꽃씨를 무료로 증정하며 주중에 한우 스페셜·모둠구이·양념등심 메뉴를 2인분 주문 시 1인분을 더 주는 해피아워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 5만원 이상 결제 시 냉면쿠폰 1매를 증정한다.

상계·역삼·여의도·서초·홍대·청담점에서도 같은 기간 방문 고객에게 천일홍·금잔화·접시꽃 등 10종의 꽃씨를 무료로 나눠준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이달 말까지 양념육이나 가공식품을 구매할 시 꽃씨를 함께 보내준다.

한편 이달 말까지 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 주문(080-925-9292), 전국 매장을 통해 가정간편식과 영양간식 할인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100% 국내산 돼지 등심을 통째로 넣은 '통등심돈가스'(720g×3박스)는 3만1500원, 단백질과 칼슘이 다량 함유된 자연산 치즈를 사용한 '모짜렐라돈가스(720g×3박스)'는 3만7800원에 할인 판매한다.

아미노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한 흑임자(검은깨)를 접목한 '흑임자 한돈너비아니'(360g×3박스·2만5200원)와 100% 한우갈빗살로 만든 '칠칠한우떡갈비'(360g×3박스·4만2000원)도 30% 할인한다.

/김학철기자 kimc0604@

스킬 리튬이온 무상교환

90년 전통의 세계적인 전동 공구 브랜드 스킬(Skil)은 2014년 올 한해 동안 리튬이온 충전 공구 및 신제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새 제품으로 무상 맞교환해주는 '2014 스킬 리튬이온 자신만만 맞교환 이벤트'를 올해 말까지 벌인다.

이 행사에선 2014년에 구매한 스킬 신제품 또는 리튬이온 제품이라면 제품 자체의 결함뿐만 아니라 고객의 실수로 고장 또는 파손됐을 경우에도 아무 조건 없이 무상으로 맞교환해준다.

무술 13단 그녀, 파이터 배우 꿈꾸다

'주먹이 운다3'서 반전 매력… 스타로 떠오른 종합격투기 선수 송가연

종합격투기(MMA) 선수 송가연의 인기가 좀처럼 식을 줄 모른다. 최근 종영한 XTM "주먹이 운다 3"에서 멘토 서두원의 서브 코치로 얼굴을 알린 이후 격투기 팬은 물론 일반 남성 시청자들의 마음까지 단번에 사로잡았다. 빼어난 미모와 함께 몸짱 개그맨 허경환을 25초 만에 백초크로 항복시키는 터프한 반전 매력까지 지닌 그는 스포츠와 연예계를 아우를 최초의 멀티 미녀 스타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서두원짐은 그가 일상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이다. 숨 돌릴 틈 없이 진행되는 훈련 속에 파이터의 이글거리는 눈빛을 보이다가도 인터뷰 자리에 마주 앉자 스무 살 앳된 숙녀의 풋풋함은 숨기지 못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인기를 실감하면서도 갑작스러운 관심이 부담도 될 것 같다.

나에 대한 관심 자체가 감사하다. 유명해지고 싶어서 방송에 나오는 게 아니냐는 말을 들으면 서운하기도 하다. 그러나 외적인 면만 알려지고 시합에서 선수로서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더 자극을 받는다. 운동에만 미친 여자라는 걸 알려주고 싶다. 무엇보다 MMA를 대중에게 더 친숙하게 알린다는 점에서는 무척 자랑스럽다.

–운동은 언제부터 했나.

어릴 때부터 또래들이 소꿉놀이를 할 때 나는 운동을 했다. 육상 선수도 했고, 태권도·유도·절권도·검도·특공무술 등을 하다 보니 합이 13단이 됐다. 고향인 제주를 떠나 부산의 경호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유도를 집중적으로 했고 방과 후에는 킥복싱을 했다.

–MMA를 시작한 계기는.

점차 격투기의 매력에 빠져 졸업할 무렵 지인의 소개로 로드FC(한국 MMA 단체)와 계약했다. 한 가지에 빠지면 끝까지 파고드는 성격인데 MAA는 다른 격투기와 달리 기술이나 전략적인 면에서 무궁무진한 매력이 있더라. 거기에 미친 나를 발견했다.

–운동만 하고 다른 취미 생활은 하지 않나.

가끔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쇼핑도 한다. 친구들의 연애 얘기를 듣는 것도 재미있다.

–본인도 한창 연애할 나이인데.

관심이 늘긴 했다. 이런 생활을 하는 나를 이해해줄 수 있는 남자면 좋다. 그런데 주위에 운동하는 오빠들이 "남자 생기면 무조건 오빠들이 먼저 봐야 한다"고 해서 엄두가 안 난다(웃음). 최소한 10명은 통과해야 될 것 같다. 고등학생 때 한 번 교제해본 게 전부다. 요즘은 사랑을 하면 운동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도 든다.

–연예인 중엔 이상형이 없나.

연예인을 잘 모르는데 최근에 본 영화에서 황정민씨가 좋았다. 자기 일에 빠져든 멋진 남자라는 느낌을 받았다.

> 탄탄한 허벅지·복근 '화제'
> 한마디로 운동에 미친 여자
> 요즘 때려달라는 남성 늘어
> 맞아보면 마음 바뀔겁니다
> 연예인 황정민·공유 좋아요 ”

–외모만 봤을 때 좋은 연예인은.

공유씨가 좋다.

–탄탄한 복근과 허벅지가 화제다. 몸 관리는 어떻게 하나.

견과류나 아미노산을 챙겨 먹는 것 말고는 특별히 식단에 신경 쓰지 않는다. 치킨을 정말 좋아하는데 꾹 참고 일주일에 한 번만 먹는다. 운동을 하다 보니 이런 몸이 됐다. 굵직한 허벅지가 여성스럽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는 만족한다.

–국내 여성 선수 수가 절대 부족이라 훈련 상대를 찾기도 힘들겠다.

맞다. 그래서 남자 선수들과 주로 훈련하는데 나보다 강한 상대를 대하다 보니 운동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송가연은 아마추어 킥복싱 대회에서 4전 4승을 거뒀고 이 중 2경기는 남자 선수와 치렀다.)

/CJ E&M 제공

–남자 선수와 격하게 육체적 접촉을 하는데 부담은 없나.

운동할 때는 전혀 느끼지 못한다. 요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지인을 통해 한 번만 때려달라는 남성들이 많이 생겼다. 막상 맞아보면 마음이 바뀔 거다(웃음).

–올해 로드FC 여자부 프로 데뷔를 준비 중이라고 들었다. tvN 'SNL 코리아'를 보니 액션 배우로도 가능성이 보이던데 목표가 무엇인가.

침대 옆엔 '한국 여성 최초의 UFC 선수가 되자'는 목표가 늘 붙어있다. 또 액션 전문 배우에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은 고교 때 몇 차례 스턴트 배우 섭외를 받으면서 갖게 됐다. 액션 배우로도 활동하는 미국의 지나 카라노 같은 선수가 되고 싶다. 최근 (윤)형빈이 오빠를 보고 정말 큰 용기를 얻었다. 운동 선수가 다른 분야에 도전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완전히 깨준 분이다. 멀티 플레이어가 되고 싶다.

사진/박동희(라운드테이블)·디자인/박은지

채널 돌리면 죄다 돌아온 싱글녀

드라마·예능 단골 소재 부상… 이혼녀 삶 재조명으로 세상에 돌직구

돌아온 싱글녀(이하 '돌싱녀')의 삶이 각종 드라마와 예능에서 재조명되며 이혼을 실패로 간주하던 세상에 돌직구를 던지고 있다.

SBS 주말극 '세 번 결혼한 여자'에서 이지아는 사랑 앞에 당당한 여성인 오은수로 결혼·이혼·재혼에 대한 거침없는 생각을 쏟아내며 시청자의 공감을 얻고 있다. 특히 "존중받지 못하는 아내, 참아낼 자신이 없습니다"라는 그의 대사는 임신 중인 상황에서 남편 김준구(하석진)의 외도에 이혼을 선택하는 오은수의 확고한 결혼관을 보여준다.

현재 김준구와 별거 중이며 전 남편 정태원(송창의)과의 재결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돌싱녀 오은수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MBC 수목극 '앙큼한 돌싱녀'는 제목부터 심상찮다. 작품은 주상욱(차정우)·이민정(나애라)이 이혼 후 각각 벤처기업 '디엔티 소프트 벤처스' 대표와 그 회사 계약 직원으로 만나 벌어지는 내용을 그린다.

나애라는 어수룩한 고시생 차정우와 결혼했지만 생활고에 시달려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이혼했고 그 후 성공한 차정우를 다시 유혹하기 위해 접근한 앙큼한 돌싱녀다. 그러나 현재는 유혹이 복수로 바뀌어 티격태격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배우 송지효는 케이블 채널 tvN 금토극 '응급남녀'에서 돌싱 인턴 의사 오진희로 출연 중이다. 불 같은 사랑으로 결혼한 오창민(최진혁)과 불같이 이혼한 후 병원 응급실에서 재회했고, 15일 두 사람이 부부 사이였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나 오진희는 재결합을 원하는 오창민의 뺨을 때리며 밀어내고 다음주 예고편에선 국천수(이필모)와 키스하는 장면이 나와 익숙한 사랑보다는 새로운 사랑을 택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예능 프로그램도 싱글녀 열풍에 합류했다. 신동엽·문지애·백지영·신은경의 진행으로 화제가 된 JTBC '99인의 여자를 만족시키는 남자'는 하와이 여행권을 두고 펼쳐지는 남편자랑대회로 99명의 돌싱녀가 최고의 남편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신동엽은 방송에서 "그녀의 남편과 결혼하시겠습니까?"라며 남편을 돌싱녀의 심판대 위에 올리는 파격적인 물음을 던진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세 번 결혼한 여자'의 송창의·이지아, '앙큼한 돌싱녀'의 이민정·주상욱, '응급남녀'의 송지효·최진혁(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연기하는 내내 행복" '맏이' 오윤아 종영 소감

"가슴 따뜻한 추억으로 깊게 남을 것 같다."

배우 오윤아(사진)가 종합편성채널 JTBC 주말극 '맏이' 종영 소감을 전했다.

오윤아는 '맏이'에서 소유욕 강하고 까칠한 부잣집 딸 이지숙 역을 맡아 특유의 존재감을 뽐냈다. 이지숙은 희로애락을 넘나드는 삶을 살아가는 일명 '이유 있는 악녀'였다. 오윤아는 캐릭터를 자연스럽게 소화하며, 시청자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었다.

17일 오윤아는 소속사를 통해 "무엇보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숙이라는 캐릭터에 대해 많은 공감과 지지를 해주셔서 연기하는 내내 행복했다"며 "그만큼 저 자신도 한 단계 성장했을 것이라고 믿고 더욱 열심히 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각오를 전하기도 했다.

한편 오윤아는 다음달 방영 예정인 SBS 새 수목극 '너희들은 포위됐다'로 쉼 없는 활동을 이어간다. 극중 강인하고 당찬 강남서 형사와 여성 실종팀장 김사경 역을 맡았다.

/양성운기자

조인성·공효진 '괜찮아…' 출연

황금 콤비 노희경 작가와 김규태 PD의 신작 '괜찮아, 사랑이야'(가제)의 초호화 출연진이 공개됐다.

SBS 새 수목극 '괜찮아, 사랑이야'에 조인성(사진 왼쪽)·공효진(오른쪽)·성동일·이광수·도경수(엑소 디오)가 출연을 확정 지었으며 추가 캐스팅이 마무리되는 다음달 중순부터 촬영이 시작될 예정이다.

'괜찮아, 사랑이야'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남녀가 우연히 TV 토론 프로그램에서 만나 티격태격하다 결국 사랑에 빠지는 로맨틱 코미디로 조인성은 인기 추리소설가 겸 라디오 DJ 장재열 역을 맡았고 공효진은 환자에 대한 애정이 많은 정신과 의사 지해수 역을 맡았다.

제작사 관계자는 "탄탄한 이야기와 수려한 영상, 배우들의 명연기가 어우러진 유머와 감동이 담긴 밝고 유쾌한 분위기의 작품이 탄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괜찮아, 사랑이야'는 현재 방송 중인 '쓰리데이즈'의 후속작 '너희들은 포위됐다'가 끝난 뒤 7월부터 방송될 예정이다. /김지민기자 langkim@

이민호 중국 남신 투표 1위… 김우빈 대만 첫 팬미팅 3000명 몰려

'상속자들' 끝나도 두남자 인기 계속

SBS 인기 드라마 '상속자들'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상속자들'이 지난해 12월 종영한 지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중국을 넘어 아시아 전역에서 인기몰이 중이다.

한류스타 이민호(왼쪽 사진)는 SBS '상속자들'의 김탄으로 중국 여심을 사로잡은 최고의 한국 스타가 됐다. 이민호는 중국의 대표적인 음악과 연예 전문 사이트인 쿠고우닷컴(Kugou.com)에서 진행한 2014 한국 드라마 남신 투표에서 '상속자들'의 김탄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남신 1위에 오르며 대륙의 연인으로 등극했다.

중국에서 사랑받은 드라마와 캐릭터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투표에는 총 135만5150명이 참여했고, 이민호는 '상속자들-김탄'으로 51만764표(37%)를 얻어 한국 드라마 남신 1위를 차지했다.

중국 언론에서는 이민호를 "한류 열풍의 주역"이라 전하며 "이민호가 2011년 '시티헌터'로 중국에 불씨를 지폈다면 2013년 상속자들로 신드롬을 일으켰다. 그 영향이 중국에 큰 영향을 끼치며 이어지는 중국의 한류 열풍에 활기를 불어넣었다"는 분석을 하기도 했다.

'상속자들'의 2인자 배우 김우빈(오른쪽)도 홍콩에 이어 대만에서 팬미팅을 열고 뜨거운 인기를 실감했다. 17일 소속사 싸이더스HQ에 따르면 지난 15~16일 대만 난강에서 열린 김우빈의 첫 팬미팅에는 3000여 명의 팬이 참석했다.

대만의 유명 MC 켄(KEN)의 진행으로 3시간여 동안 이어진 팬미팅에서 김우빈은 이적의 '다행이다'를 부르고 중국어로 자기소개를 하며 매력을 선보였다.

김우빈은 그간의 작품인 영화 '친구 2', 드라마 '신사의 품격' '상속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팬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시간도 가졌다. 또 팬들에게 직접 그린 그림을 선물하기도 했다.

김우빈은 오는 29일 중국 상하이 팬미팅에 이어, 다음달 5일 태국 팬미팅을 이어갈 예정이다.

/양성운기자 ysw@

리키 김 가족 합류 등 '오마베' 전면개편 단행

SBS 육아 예능 '오! 마이 베이비'(이하 '오마베')가 전면 개편을 단행했다.

'오마베'는 수요일 오후 11시10분, 80분 편성으로 방송 시간을 변경했고 리키김 가족(사진)을 투입해 시청자를 만날 예정이다.

리키김 가족의 합류는 고은아·미르 가족의 하차로 이뤄졌고 아역배우 못지않은 사랑스러운 외모를 자랑하는 태린·태오 남매와 아내인 뮤지컬 배우 류승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 결정됐다.

'오바베'는 '짝'이 출연자 자살 소동으로 지난 7일 폐지되면서 그 빈자리를 메우게 됐다.

스타의 육아 과정을 다루는 관찰 예능 프로그램으로 배우 임현식과 뮤지컬 배우 김소현·손준호 부부가 출연 중이다.

/전효진기자

4월 14일 tvN 첫 방송 | 매주 월화 밤11시

엄정화 | 박서준 | 한재석 | 정연주 | 양희경 | 주진모 | 이세창 | 라미란 | 강성진 | 윤현민

연출 이정효 ✦ 극본 반기리 | 이선정 ✦ 기획 tvN ✦ 제작 그룹에이트

tvN 월화드라마

마녀의 연애

팔자극복 로맨스

발랄하거나

포미닛 5집 경쾌한 리듬 돋보여

시크하거나

에이핑크 4집 중성적 매력 발산

가요계 섹시 전쟁 새 국면

올 초부터 극으로 치닫던 가요계 섹시 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국민 걸그룹 소녀시대와 2NE1이 자신들만의 음악적 색깔을 확고히 지켜나가고 있는 가운데 포미닛(왼쪽 사진)과 에이핑크(오른쪽)도 톡톡 튀는 발랄함과 시크한 매력으로 돌아온 것이다.

포미닛은 '오늘 뭐해'로 다시 한 번 음원 파워를 과시했다.

포미닛은 섹시함보다 톡톡 튀는 발랄함과 과감한 퍼포먼스로 팬심을 흔들고 있다. 17일 공개된 미니 5집 '포미닛 월드'의 타이틀곡 '오늘 뭐해'는 용감한 형제와 호흡을 맞춘 곡으로 업 템포의 경쾌한 리듬과 중독성 짙은 멜로디가 특징이다.

덕분에 17일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오늘 뭐해'는 벅스, 올레 뮤직, 지니, 소리바다, 네이버 뮤직 등 5개 음원차트 실시간 1위에 올랐다.

에이핑크는 17일 공개된 4집 미니앨범의 포스터 사진을 통해 도도한 매력을 선보였다. 최근 컴백 일정을 깜짝 공개한 에이핑크는 17일 공식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 새 음반의 포스터 컷을 올렸다. 포스터 속 에이핑크 멤버들은 웃음기를 뺀 무표정한 얼굴을 한 채 무채색의 원피스와 스타일리시하면서도 중성적인 매력이 돋보이는 높은 굽의 워커를 신고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 성숙미가 느껴지는 업 스타일의 올림머리는 물론 평소 시도하지 않던 블루와 레드 계열의 아이 메이크업으로 포인트를 가미했다. 그동안 보여온 상큼하고 발랄한 분위기 대신 도도하고 시크한 매력을 담아냈다.

에이핑크가 9개월 만에 발표하는 새 음반인 4집의 전곡은 31일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헬멧 벗고 두건 쓴 크레용팝

전통의상 콘셉트 앨범 화보

걸그룹 크레용팝(사진)이 컴백을 알리는 앨범 화보를 공개했다.

크레용팝은 17일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어반 라이프 스타일, 크레용팝 화보 컷 공개"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화보 속에서 크레용팝은 하얀색 모시 저고리와 바지를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빨간 양말에 흰 고무신을 신은 멤버들은 헬멧 대신 두건으로 포인트를 줬다. 또 도시를 배경으로 캐리어를 끌고 있는 크레용팝의 모습은 마치 공항 패션을 연상케 해 보는 이들의 웃음을 자아낸다.

앞서 크레용팝의 이번 신곡 의상 콘셉트는 한국의 전통 의상을 모티브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복을 입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았다. 하지만 화보컷이 공개되면서 이번 신곡 의상은 한복이 아닌 모시옷인 것으로 밝혀졌다.

소속사 관계자는 "한국의 전통 의상이 갖고 있는 편안함과 실용성 및 독특함과 차별성이 이번 신곡 의상 콘셉트의 주요한 선택 이유였다"며 "국내 팬들에게는 모시옷이 갖는 친숙함을, 해외 팬들에게는 한국적인 느낌과 동시에 신선함으로 다가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크레용팝은 28일 언론 쇼케이스에서 첫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개 쇼케이스는 29일 오후 7시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다. /양성운기자 ysw@

'성룡 키즈' JJCC의 매력 이 정도야

5인 5색 스펙 공개

월드스타 성룡(작은 사진)이 극비리에 진행해온 K-팝 프로젝트 신인 아이돌 그룹 JJCC(더블JC·큰 사진)의 실체가 공개됐다.

한국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성룡은 K-팝 잠재력을 높이 사 신예 아이돌 그룹을 제작하기로 결정했고, 4명의 한국인 멤버와 1명의 중국계 호주인 멤버를 직접 발굴해 트레이닝시키는 등 남다른 공을 들였다.

멤버 에디는 10년 전부터 성룡으로부터 집중 트레이닝을 받은 대표적인 성룡 키즈다. 3옥타브를 넘나드는 천부적 음악 재능을 지닌 에디는 그동안 힙합·재즈·발레 등 다양한 퍼포먼스를 익혀왔다. 또 성룡이 운영하는 세계적 액션스쿨 잭키찬스턴트그룹 스턴트 과정을 수료하며 액션 배우의 역량도 키워왔다.

호주 국적의 중국인 멤버 프린스 맥은 중국의 유명 서바이벌 프로그램 우승자 출신으로 성룡의 눈에 띄어 멤버로 최종 발탁됐다. 이외에도 우월한 신체 구조를 자랑하는 리더 심바와 이코는 국내외 유명 패션쇼의 런웨이를 누빈 모델 출신이다. 경상도 사나이 막내 산청은 자작곡 능력을 겸비한 싱어송라이터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JJCC는 이달 중 국내에서 데뷔 무대를 열고 향후 아시아 음악 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예정이다. /양성운기자

위너, 2NE1 투어 게스트

YG엔터테인먼트의 기대주 위너(사진)가 2NE1의 월드투어 중화권 공연 게스트로 참여한다.

위너는 22일 2NE1 월드투어 홍콩 공연을 비롯해 중국(다음달 11일), 대만(26~27일) 콘서트에 차례로 초대됐다.

이번 참여는 평소 후배를 아끼던 2NE1의 추천으로 이뤄졌다. 앞서 위너는 2NE1 월드투어 서울 공연 게스트로 초대돼 '저스트 어나더 보이'와 '고 업' 무대를 선보여 국내외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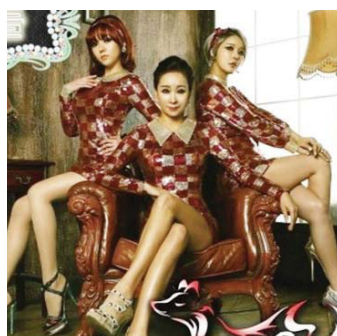
2NE1의 첫 번째 월드투어를 함께한 세계적인 연출가 트래비스 페인과 스테이시 워커, 빅뱅과 지드래곤의 월드투어에 참여한 라이브 밴드, 세계적인 비주얼 영상팀 파서블 등이 함께하는 이번 투어는 홍콩·중국·대만 등 9개국 12개 도시에서 개최된다. /전효진기자 jeonhj89@

김지현 "복고란 이런 것 보여주겠다"

3인조 그룹 '언니들'로 컴백

혼성 그룹 룰라의 멤버 김지현이 컴백한다.

김지현은 프로젝트 3인조 그룹 언니들(김지현·니키타·나미·사진)로 활동 예정이며 언니들은 17일 싱글앨범 '늙은 여우'를 공개했다.

'늙은 여우'는 중독성 강한 멜로디를 가진 하우스풍의 곡으로 트렌드가 된 연상·연하 커플의 이야기를 재미나게 풀어낸 가사가 인상적이다. 김종국·씨스타·마이티마우스 등의 곡을 작곡한 귓방망이의 작품이며 한국적인 멜로디와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곡을 강조한 김지현의 의견이 잘 녹아 있는 곡이다.

소속사 이든 엔터테인먼트 측은 "1990년대 가요도 복고가 된 지금 이 세 명이 모여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펄시스터즈·서울시스터즈처럼 2014년 언니들이 제대로 된 복고를 보여줄 것이다"고 전했다.

김지현은 현재 룰라 멤버인 이상민·채리나와 '청춘 나이트' 전국투어 콘서트에 참여하고 있다.

/양성운기자

웅장한 스케일 '격'이 달라

8만5000ℓ 물탱크 5개로 폭우 표현… 거대한 방주 1200평 건물로 구현

film review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노아

성경의 창세기는 우리가 아는 한 가장 규모가 큰 블록버스터다. 신은 6일에 걸쳐 하늘과 땅, 낮과 밤, 아담과 이브 등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창조했다. 그러나 타락한 세상에 분노한 신은 대홍수로 인간을 심판하고, 신의 구원을 받은 노아 가족만이 방주를 만들어 동물 암수 한 쌍씩을 태워 살아남는다.

20일 개봉을 앞둔 영화 '노아'는 이 같은 성경 속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작품이다. 이 때문에 영화는 기획 단계부터 종교영화로 주목받았지만, 결과물은 비종교인도 무난하게 볼 수 있도록 드라마적이고 오락적인 요소도 포함된 한 편의 블록버스터물로 탄생했다.

영화는 성경 속 풍경을 스펙터클하게 스크린에 펼쳐냈다. 거대한 방주를 단순한 컴퓨터그래픽(CG)으로 작업한 게 아니라 1200평 6층 건물 규모로 실제 건축해 실감 나게 구현했다. 방주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수많은 종류의 동물과 곤충 떼들도 실제 제작한 모형에 CG를 덧입힘으로써 현실감을 부여했다. 8만5000ℓ 물탱크 5개로 만들어낸 폭우와 대홍수, 태초의 신비로움을 간직한 광활한 대지도 인상적이다.

내용적으로는 성경 속 단 몇 단락에 그친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상상력을 동원해 극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재미를 높였다. 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노아(러셀 크로)와 가족 간의 갈등을 그려 노아의 인간적인 면을 부각시켰고, 타락한 세상을 다스리는 두발 가인(레이 윈스턴)이라는 인물을 새롭게 창조해 노아와의 대립 구도를 형성했다.

그러면서도 단순히 오락거리에만 그치진 않았다. 타락한 세상에 맞서 방주를 지으면서도 자신과 가족의 탐욕적인 모습을 자각하는 노아의 모습을 통해 선과 악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져주기도 했다.

'블랙스완'에서 탁월한 인물 심리 묘사로 감탄을 자아냈던 대런 아로노프스키 감독이 시나리오와 연출을 맡아 새로운 노아를 창조했다.

그러나 정작 주인공인 노아의 심리 표현은 아쉽다. 아로노프스키 감독은 종교인과 비종교인 모두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인간 노아를 영화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가장 많은 고민을 했다지만 노아가 왜 단호한 의지로 신의 사명을 수행하는지 공감하기 어렵고, 인간적인 고뇌도 와 닿지 않는다.

노아를 도와주는 거인족의 모습도 옥에 티다. 땅속에 바위처럼 파묻혀 있다가 거인으로 변모하는 이 거인족의 모습은 마치 '트랜스포머' 시리즈의 외계 로봇을 연상시켜 황당함을 자아낸다.

그럼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성경의 대서사시가 가진 매력적인 이야기와 이를 기술력으로 스크린에 구현한 스펙터클한 풍경, 그리고 러셀 크로를 비롯해 제니퍼 코널리·엠마 왓슨·앤서니 홉킨스·로건 레먼 등 할리우드 톱스타들의 호연이 빛나 흥미롭게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이다.

현빈·류승룡 스크린 맞대결

'역린' '표적' 내달 30일 개봉

제대 후 마침내 복귀하는 현빈(사진 왼쪽)과 흥행 배우 류승룡(오른쪽)이 스크린에서 피할 수 없는 맞대결을 벌인다.

17일 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현빈 주연의 '역린'은 개봉 일자를 다음달 30일로 확정했다. 이날은 '광해, 왕이 된 남자' '7번방의 선물'로 1000만 관객을 모으며 흥행 배우로 뜬 류승룡 주연의 '표적'과 개봉일이 같아 두 배우의 대결이 주목된다.

두 작품 모두 스타 배우들의 출연으로 기대가 높은 작품이다. 정조 즉위 1년 정유역변을 모티브로 한 '역린'에서 현빈은 끊임없이 암살 위협에 시달리면서도 강인함을 잃지 않는 조선의 왕 정조로 변신했다. 제대 후 복귀작인 데다 데뷔 후 첫 사극 출연이라 업계와 대중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다모' 등 인기 드라마를 연출한 이재규 PD의 스크린 데뷔작이기도 한 이 영화에는 정재영·조정석·조재현·한지민·김성령·박성웅 등 스타급 배우들도 총출동한다.

류승룡은 액션영화 '표적'에서 아내를 구하기 위해 의문의 살인사건에 휘말린 남자 여훈 역을 맡아 액션 연기에 도전한다. 이를 위해 체중 감량을 하고 5개월간 액션 훈련을 소화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욱이 여훈과 동행하는 의사 태준 역을 맡아 스크린 신고식을 치른다. /탁진현기자

아카데미 수상작 한자리에

CGV 23일까지 특별전

올해 아카데미영화상 수상작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CJ CGV는 23일까지 전국 80여 개 극장에서 '2014 아카데미 수상작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부문의 상을 수상한 '노예 12년'(사진)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블루 재스민' '그래비티'가 상영된다.

스티브 맥퀸 감독의 '노예 12년'은 흑인 감독으로는 처음으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수작이다. 신인 루피타 뇽오는 데뷔작인 이 영화에서 여우조연상을 받아 오스카의 신데렐라가 됐다.

장 마크 발레 감독의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은 남우주연상과 남우조연상을 독식한 작품이다. 매슈 매코너헤이와 자레드 레토가 각각 에이즈 진단을 받은 뒤 살기 위해 노력하는 카우보이와 에이즈로 죽어가는 여장 남자를 열연했다.

우디 앨런 감독의 '블루 재스민'은 케이트 블란쳇에게 여우주연상을 안겼다. 블란쳇이 신경 쇠약 직전의 여성을 세련되게 표현했다.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그래비티'는 감독상·음악상을 포함해 7관왕에 올라 이번 아카데미영화상에서 가장 많은 상을 휩쓸었다. 우주 재난을 다룬 이 영화는 3D·4DX·IMAX로도 만날 수 있다. /탁진현기자

'마이보이' 이태란 "촬영하며 결혼 생각"

새 신부 이태란(사진)이 영화 '마이보이'로 인해 변한 결혼관을 솔직히 밝혔다.

지난 1일 결혼식을 올린 뒤 17일 열린 '마이보이' 시사회 및 기자간담회로 활동을 재개한 이태란은 "결혼 전에 이 영화를 찍었는데 엄마 연기를 하며 빨리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엄마 역할을 할 나이다. 경험을 통해 진짜 연기를 하고 싶었다. 그래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며 "영화 내내 감정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촬영 내내 우울하고 힘들었다"고 촬영 소감을 전했다.

'마이보이'는 아픈 아이를 놓아줘야 하는 엄마(이태란)의 슬픔과 남겨진 어린 형(이석철)의 상처, 가족을 지켜보는 이(차인표)의 안타까움을 그린 영화로 다음달 10일 개봉된다. /유순호기자 suno@

4차원 질투녀·바람둥이 아찔한 로맨스

佛 영화 '러브 인…' 개봉

헤어진 연인과 비행기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다가오는 봄을 맞아 달콤한 프랑스 로맨스물 한 편이 관객을 찾는다. 20일 개봉 예정인 영화 '러브 인 비즈니스클래스'(사진)는 3년 전 연인 사이였던 4차원 질투녀 줄리(루디빈 사니에)와 잘나가는 바람남 앙트완(니콜라 베도스)이 뉴욕발 파리행 비행기의 비즈니스클래스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동승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아찔하고 로맨틱한 6시간의 비행을 다룬 작품이다.

여주인공으로 프랑스를 대표하는 섹시 스타이자 프랑수아 오종 감독의 뮤즈라 불리며 '8명의 여인들' '우리의 릴리' '사랑해 파리' 등에 출연한 루디빈 사니에가 출연한다. 남자 주인공은 최근 국내에 개봉한 프랑스 영화 '사랑의 유효기간은 3년'의 니콜라 베도스가 맡았다. /탁진현기자

Made in KOREA

1983년 MTV 25주년 특집 방송에 마이클 잭슨이 등장했다. '빌리진'을 부르며 전설이 된 문워크 춤을 선보인 날이었다. 이때 마이클 잭슨이 왼쪽 손에 착용했던 라인석 골프 장갑은 단숨에 화제로 떠올랐다. 이 장갑은 2009년 뉴욕의 하드록 카페에서 경매에 붙여졌고 35만 달러에 낙찰됐다. 낙찰 후 장갑의 브랜드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됐는데 안쪽 라벨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메이드 인 코리아' 뿐이었다.

드라마·가요·영화 업계는 상품 기획을 'K' 붙이기에서 시작한다. 해외시장 판매를 기본으로 하면 최소한 본전은 뽑는다는 판단이다. 안이한 생각이지만 맞아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품은 K 스타·K 문화·K 정신·K 언어 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문화 콘텐츠는 그 자체가 메이드 인 코리아의 집합체다. 즉 어디에서 만들어졌느냐는 것의 프리미엄을 가졌다는 얘기다.

한국 패션은 북미나 유럽 지역의 바이어들에게 인기가 높다. 이제 곧 한국 땅으로 몰려들 기세다. 이런 흐름에 초를 치고 있는 것이 원산지 표시다. 디자인, 컬러, 패턴 등에서 인정을 받고도 '메이드 인 베트남' 또는 '메이드 인 차이나'의 라벨 때문에 거래에 제동이 걸린다. 대부분의 바이어는 메이드 인 코리아였다면 훨씬 더 높은 가격에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말한다. 결국 판매 가격을 낮춰 팔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수주 계약 체결 후 오래지 않아 취소를 통보받기도 한다.

한국은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다. 여기에는 메모리 반도체·자동차·LCD 등 이른바 수출 효자 종목의 힘이 컸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품의 원산지 표기 시 조립 지역을 부각시키는 '프로세스드 인 코리아' 혹은 총체적 관리 지역을 알리는 '컨트롤드 인 코리아' 방안을 제시했다.

눈 가리고 아웅이다. 훨씬 힘들고 복잡하겠지만 메이드 인 코리아가 가져올 가치를 생각하면 해야 할 일이다. 경제활동에 대한 지역자치단체의 적극성,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경험, 은퇴자들에 대한 활용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싶다.

/인터패션플래닝(www.ifp.co.kr) 대표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짝사랑 상대 결혼 가능할까 인연 소중히 하면 맺어져요

**꽃처녀 여자 86년 11월 26일 양력 오전 6시
남자 85년 5월 18일 양력**

Q 12년째 알고 지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1. 무슨 인연이 있어서 연락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건가요. 2. 사주상 제가 목(木)이고 이 사람이 토(土)라고 하던데 나무가 땅을 만나는 게 맞는지요. 3. 지금은 제가 더 많이 좋아하고 있는데 둘이 결혼운은 있는지, 하게 된다면 잘 살게 되는지요.

A 두 분의 궁합은 천간(天干)에서 생(生)해주고 있으며 귀하 또한 남자에게 필요한 기운이 있어 상생되니 마음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목극토(木剋土:목이 토를 극한다)는 부부궁에 충살(沖殺:충돌)로 근본적으로 트러블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운의 흐름에 따라 흉함은 소멸됩니다. 이는 당사자끼리는 살아갈 수 있으나 양가 집이 서로 가풍과 습관이 맞지를 않아 둘이 갈라질 수도 있는 부호의 공식인데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운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은 상대적이라 자신의 부족함과 흉함을 상대를 바꿈으로써 새롭게 전환하기보다는 현재 인연을 소중히 여기면 어떨지요. 다음 질문은 다시 상담 신청을 하십시오.

구입한 신축 빌라 팔릴까요 2016년 돼야 매매 성립될 듯

행운이 가득 여자 67년 8월 2일 음력 저녁 9시경

Q 살고 있는 상가주택이 저와 맞으니 그곳에서 지내는 것이 좋다고 하여 신축 빌라는 구입 후 바로 세를 줬어요. 그런데 신축 건물이 부실하게 지어진 거라 세를 사는 분이 불평도 많고 해서 언제 손해 보지 않고 팔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그리고 전세 놓은 집도 처분을 하고 싶어요. 상가주택은 전세, 빌라는 월세입니다.

A 생일지에 장생궁(長生宮)을 놓아 여간한 흉살을 제압하는 좋은 사주입니다만 편인(偏印:나를 생해줌)과 비견(比肩:나와 동급)의 왕성한 결합은 어느 한 방향으로 치우쳐 사물의 양면을 간과하지 않는 속성을 지닙니다. 어린 애기가 앞만 보고 뛰어가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행하는 행동들이 각자에게 기쁨을 주면 좋겠으나 넘어질 때 타격이 커지겠지요. 2016년이 돼야 매매가 성립된다고 볼 것입니다. 문서운이 좋아야 매매가 되고 계약이 잘 이뤄지는 것인데 다소 불투명하니 방법론으로 상식선에서 부동산 관련 공부를 해두면서 2014년 5월부터 기회를 살펴보십시오. 심장이 약하여 공연한 강박감이 정신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7		1					2
		4	7	8		6		
5	8		3		9			
3							6	
7				5				8
	6							5
			5		4		1	6
		5		2	7	4		
4					1		3	

3				6	2			
4		6		7	3		1	
5		7						
					5			2
		9		1		6		
7			9					
						2		4
	7		1	2		9		5
			6	4				7

스도쿠 정답

6	7	3	1	4	5	8	9	2
9	1	4	7	8	2	6	5	3
5	8	2	3	6	9	7	4	1
3	5	9	2	7	8	1	6	4
7	4	1	9	5	6	3	2	8
2	6	8	4	1	3	9	7	5
8	9	7	5	3	4	2	1	6
1	3	5	6	2	7	4	8	9
4	2	6	8	9	1	5	3	7

3	9	1	5	6	2	7	4	8
4	2	6	8	7	3	5	1	9
5	8	7	4	9	1	3	2	6
1	6	3	7	8	5	4	9	2
8	5	9	2	1	4	6	7	3
7	4	2	9	3	6	8	5	1
9	1	8	3	5	7	2	6	4
6	7	4	1	2	8	9	3	5
2	3	5	6	4	9	1	8	7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리미티드' (마이클 리오스 지음)

신점[神占] 운세 3월 18일 (음 2월 18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48년생 배우자 묵묵부답에 답답하다. **60년생** 생각대로 이루어지니 걱정 마라. **72년생**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진 형국이다. **84년생** 여유가 있을 때 단점 보완할 것.

49년생 기분대로 좌충우돌 마라. **61년생** 투자한 곳에서 이익이 발생한다. **73년생** 바빠도 우물 가서 숭늉 찾지 마라. **85년생** 자신을 낮추면 만사 무난하다.

50년생 소신 발언은 빛을 본다. **62년생** 공적인 자리선 도발적 행동 자제하라. **74년생** 주관이 강하면 일만 꼬인다. **86년생** 벌과 나비가 꽃을 만나는 격이로구나.

51년생 남의 일에 참견은 금물~. **63년생** 주거 문제 고민은 우연히 해결된다. **75년생** 말이 달콤한 사람은 멀리할 것. **87년생** 밀려드는 일에 하루가 후딱 간다.

52년생 생각도 못 한 수입이 생긴다. **64년생** 운전대 가능한 한 잡지 마라. **76년생** 개가 나가고 황소가 들어온 격이다. **88년생** 남을 돕는 일에 몸 사리지 마라.

53년생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이웃 때문에 답답~. **65년생** 남쪽으로 출행하면 이롭다. **77년생** 자기 관리에 신경 써라. **89년생** 필이 꽂힌 이성에게 프러포즈받는다.

42년생 변신의 기회에 주저하면 땅 친다. **54년생** 섭섭한 마음은 담아두지 마라. **66년생** 끈질김은 어떤 장애도 극복한다. **78년생** 귀인이 찾아오니 놓치지 마라.

43년생 약속 지키는 데 신경 써라. **55년생** 좋은 일에 이름이 거론된다. **67년생** 공직자는 인정에 끌려가지 않도록 조심~. **79년생** 어려움이 지나고 웃을 일이 생긴다.

44년생 용기만 있으면 뜻을 이룬다. **56년생** 꿈이 사나우면 외출 삼가라. **68년생** 작은 것이 나가고 큰 것이 들어온다. **80년생** 보증금이나 전세금 일은 조심 또 조심~.

45년생 마음으로 주고받는 선물이 최고~. **57년생** 원하던 대로 일은 풀려나간다. **69년생** 작은 성과에 새로운 자신감 쑥~. **81년생** 자만심이 최대의 적이다.

46년생 욕심부리면 자기가 만든 덫에 빠진다. **58년생** 체면 때문에 허세 부리지 마라. **70년생** 방심하면 손안의 고기 놓친다. **82년생** 새가 창공을 고공 비행하는 형국~.

47년생 음식으로 인한 탈 조심~. **59년생** 긴장 풀면 설마하던 일이 터진다. **71년생** 문서 일은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 **83년생** 노력한 만큼 좋은 결실 맺는다.

위기에 더 강해진 류현진

콜로라도전 1자책 '실점 최소화'… 시범경기 16.1이닝 평균 자책 2.20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27·LA 다저스)이 호주 개막전 등판 준비를 마쳤다. 2년차를 맞아 지난해보다 나아진 모습으로 스프링캠프를 마무리했다.

류현진은 17일 미국 애리조나주 글렌데일의 카멜백 랜치에서 열린 '2014 메이저리그' 시범경기 콜로라도 로키스전에 선발 등판해 5⅓이닝 7피안타 3탈삼진 2실점(1자책)을 기록했다.

피안타가 다소 많았고, 비디오 판독으로 판정이 뒤집히는 등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특유의 위기관리 능력을 선보이며 실점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다. 웬만한 상황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류현진이었다.

이로써 류현진은 이번 시범경기 등판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시범경기를 마친 다저스는 17일 호주 개막 2연전과 친선경기를 위해 호주로 떠난다. 류현진은 23일 개막 2차전에 선발로 나설 예정이다. 우리 시간으로 28~30일까지 마지막 시범경기가 남아있지만, 비행거리와 시차 등을 감안하면 류현진은 31일 본토 개막에 맞춰 등판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류현진은 이번 시범경기에서 4경기에 출장해 16⅓이닝 16피안타(2피홈런) 3볼넷 10탈삼진에 평균자책점 2.20을 기록했다. 피안타가 조금 많은 감이 있지만 위기관리 능력은 한층 더 좋아졌다. 전체적으로도 지난 시즌보다 나아진 성적이다. 지난 시즌 스프링캠프에서 류현진은 2승2패, 평균 자책점 3.45를 기록한 바 있다.

류현진은 오는 23일 호주 개막 2차전에 선발로 등판한다. 최소 90개 이상의 공은 던지게 될 전망이다. 일단 지금까지 컨디션만 놓고 보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2년 연속으로 2선발로 시즌을 시작하지만, 지난해와는 사뭇 다른 느낌의 2014시즌이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17일 열린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시범경기에서 류현진(27)이 역투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광주 새 야구장의 효과

이선호의 베이스볼 카페

광주에 새롭게 들어선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는 관중에게는 아주 좋은 야구장이다. 관중석이 그라운드에 가깝고, 의자 크기와 간격이 넓어졌고 해를 등지고 야구를 볼 수 있다. 내야석 각도가 16도로 편안한 시야감을 준다. 화장실, 편의점, 장애인석 등 각종 편의시설도 부족함이 없다.

문제점도 많다. 잔디 상태와 흙 등 그라운드가 완벽하지 않았다. 투수들이 등판을 준비하는 불펜도 구부러졌고 익사이팅존은 수비수들의 부상 우려를 낳고 있다. 설계 과정에서 기형적인 건물들이 생겨나는 등 세밀한 부문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신축 중인 대구 신구장이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을 대목이다.

그럼에도 광주 신구장은 벌써부터 명소가 되고 있다. 지난 주말 KIA 타이거즈-두산 베어스의 경기에는 무려 3만8000명의 관중이 입장했다. 개장 첫 프로야구 경기가 열린 토요일에는 1만8000명, 일요일에는 2만명이 찾았다. 시범경기치고는 기록적인 관중이었다. 그만큼 신구장에 대한 관심이 컸다.

하루 2만 관중은 KIA 구단에는 꿈의 숫자였다. 무등야구장은 1만2500석뿐이었다. 이제는 롯데 자이언츠, 두산 베어스, LG 트윈스, SK 와이번스와 더불어 연간 100만 명 관중을 동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다. 벌써부터 구단 관계자들은 흥행 기대감에 고무된 표정이었다. 팀 성적도 좋아야 하고 세련된 마케팅 기법도 발굴해야 할 것이다.

야구계로 본다면 챔피언스필드 개장은 흥행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연간 700만 관중을 넘어섰지만 1000만 관중은 요원하다. 오히려 작년에는 메이저리그 경기가 전파를 타면서 관중이 줄어들었다.

올해도 윤석민과 오승환 등이 해외 진출하는 악재까지 겹쳤다. 때문에 더욱 광주 신구장의 개장은 반갑다. 신구장이 흥행 기폭제 노릇을 해줄 것인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OSEN 야구전문기자

심석희(앞)가 17일 열린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1000m 결승에서 선두로 질주하고 있다. 그 뒤를 박승희와 발레리 말테(캐나다)가 따르고 있다. /USA 투데이 연합뉴스

'역전의 여왕' 심석희 3관왕

쇼트트랙 세계선수권

안현수 7년만에 종합 1위

심석희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3관왕에 오르며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심석희는 17일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에서 열린 2014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3000m 슈퍼파이널에서 4분50초829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이날 2위 그룹에 속해있던 심석희는 마지막 한바퀴에서 역전에 성공하며 우승했다.

앞서 심석희는 1500m 금메달로 34점을 획득한 후 이날 1000m 결승에서도 1분30초488의 기록으로 1위를 기록하며 34점을 추가로 득점했다. 이로써 심석희는 총 102점을 기록해 종합우승의 영광을 거머쥐었다.

한편 소치올림픽에서 3관왕에 오른 빅토르 안(안현수·작은 사진)은 남자부에서 총 63점을 획득해 지난 2007년 이후 7년 만에 종합우승을 차지해 개인 통산 여섯 번째 세계선수권대회 종합우승 기록을 세웠다.

/양성운기자

빙상연맹 부회장 사퇴

이른바 빅토르 안(안현수) 파문으로 논란이 된 전명규(52)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이 자진 사퇴했다.

17일 빙상연맹에 따르면 전 부회장은 소치올림픽에 출전한 쇼트트랙 대표팀의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났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이후 터진 '짬짜미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빙상연맹 부회장에서 물러났던 전 전 부회장은 2년 뒤인 2012년 복귀했으나 2년 만에 또다시 부회장에서 물러나게 됐다.

소치올림픽에 참가한 한국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은 12년 만에 노메달의 수모를 당했고, 반면 러시아로 귀화한 안현수는 3관왕에 오르며 대조를 이뤘다. 안현수의 귀화 이유에 대한 관심이 쏠렸고, 연맹의 파벌 문제가 부각되면서 비난의 화살은 전 전 부회장으로 향했다.

빙상연맹 전 임원은 '평창대비 빙상발전위원회'에 모든 사항을 일임하기로 했다.

/유순호기자 suno@

오리온스, SK꺾고 반격 1승

프로농구 고양 오리온스가 서울 SK를 제압하고 벼랑 끝에서 탈출했다.

오리온스는 17일 경기도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2013-2014 KB국민카드 프로농구 6강 플레이오프(5전3승제) 3차전 SK와의 홈 경기에서 81-64로 승리했다.

2패 뒤 1승으로 한숨을 돌린 오리온스는 19일 오후 7시 같은 장소에서 4차전을 치르게 됐다.

이번 시즌 오리온스는 정규리그에서 SK에 6전 전패를 당했고 플레이오프 1,2차전도 내주면서 유독 약한 모습을 보였다. 이틀 전 잠실에서 열린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는 4쿼터 중반까지 15점을 이기다 뒤집히는 등 SK는 '넘기 어려운 산'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하지만 이날 경기를 앞두고 오리온스는 장재석이 머리를 짧게 깎고 나오며 선수단 분위기를 새롭게 했고 결국 이날 17점 차 대승을 거두며 대반격에 나섰다.

/양성운기자

프로농구 전적 17일

팀	1Q	2Q	3Q	4Q	합계
오리온스	19	22	17	23	**81**
SK	10	18	18	18	**64**
국민은행	19	19	17	8	**63**
하나외환	13	15	14	9	**51**

추신수 2루타 1득점

미국프로야구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32)가 시범경기에서 2루타를 뽑아냈다.

추신수는 17일 미국 애리조나주 서프라이즈 스타디움에서 열린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시범경기에 1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볼넷 1개를 포함해 3타수 1안타 1득점을 기록했다.

14일 샌프란시스코전에서 텍사스 유니폼을 입고 첫 홈런을 때렸던 추신수는 이날 2루타를 치며 장타력을 서서히 끌어올리고 있다. 시범경기 타율은 0.160에서 0.179로 올랐다.

첫 타석에서 볼넷을 뽑은 추신수는 3회 두 번째 타석에서 존 댕크스의 시속 145㎞ 투심패스트볼을 받아쳐 좌익수 쪽 2루타를 만들어냈다. 이후 조시 윌슨의 중전안타로 홈을 밟아 시범경기 4득점째를 기록했다.

5회에는 중견수 플라이로 돌아섰고 6회 투수 땅볼로 물러난 뒤 7회 교체됐다. 텍사스는 14-8로 승리했다.

/유순호기자